



오세훈 시장, "서울항 조성 재검토 의향 있다"확답

오 시장,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타당성 조사 결과 매우 좋지 않으면 '서울항' 조성 재검토 하겠다" 답변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항' 조성재검토 의향 질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검토 여지가 있을 밝혔다.

15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 의원은 오 시장을 대상으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하점을 날발이 설명했다."

특히,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주요사업인 '서울항' 조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미국유럽의 경제정책 방향 상,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중국과 거리를 두기를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군사적·외교적 이슈가 발생하면 관광산업을 보복 수단으로 삼아왔기에 중국인 관광객과 중국 노선으로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서울항'의 비전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시장은 해당 내용이 타당성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연장선상에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사업 재검토 의향이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했다.

시장은 결과가 매우 좋지 않으면 재검토 할 수 있다고 확답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항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용역 기간은 1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항' 조성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2010년 재임 당시 한강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으며, 현재 환경단체 등 곳곳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광수기자

윤석열 대통령, 역대 최대규모 2023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주관... "확고한 안보태세와 실전적 훈련으로 국민지킬것"

윤석열 대통령은 6. 15일 오후 경기 포천에 위치한 승진훈련장에서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측의 F-35A, K9 자주포, 미측의 F-16, 그레이이글 무인기 등 첨단전력 610여 대와 71개 부대 2,500여 명의 한미 장병이 참가했다.

오늘 훈련은 5군단장(육군중장 김성민)의 보고로 시작됐다. 1부 훈련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면적인 공격에 대응해 △ F-35A, F-16 등 연합 공중전력과 K-9 등을 통한 대화력전 실사격, △ 정찰드론으로 전장상황을 파악 후 공격행기, 포병, 직사화기등의 실사격을 통해 GOP 일대 북한의 공격을 격퇴했다.

이어진 2부 반격작전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완전히 격멸하기 위해 한미연합 감시·정찰자산으로 식별한 핵심표적에 대해 공중·포병전력으로 정밀타격이 진행됐다. 이후 △ 지상공격부대의 기동 및 사격, 장애물지대 극복, △ 한미연합·합동부대의 동시통합사격으로 적 부대·진지 초토화, △ 입체고속기동부대에 의한 목표지역 확보 순으로 훈련이 진행됐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훈련 상황을 세세하게 보고받았으며, 우리 군이 표적을 명중시킬 때마다 박수로 격려했다.

대통령은 훈련 종료 후 외부 관망대로 이동해 참관 국민들에게 인사말을 했다. 대통령은 "이번 한미 연합 군 합동 화력격멸훈련은 건군 75주년, 동맹 70주년을 맞아 6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다"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매우 든든하고 흡족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



화가 아닌 우리 힘으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와 실전적 훈련으로 나라를 굳건히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은 훈련 참가를 위해 신혼여행을 미룬 장교(대위 이승원), 전역을 1개월여 연기한 병사(병장 김용호) 등 대한민국 장병들과 6·25전쟁 참전 용사의 손자인 미군 장병(하사 Hollingsworth)을 대상으로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군인의 본분에 충실한 여러분들이 있기

에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며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외부 관망대 앞의 전시장으로 이동해 "강한 국군이 지키는 평화"라고 방명록을 작성한 후 우리 측의 △K2 전차 △K21 보병전투차량 △REDBACK 장갑차 △K808 차륜형 장갑차 △장애패 개척전차 △드론(소총조준, 수송, 지뢰탐지, 통신중계) △천무 △천공 등 장비와 미측의 MLRS 등 한미 양국 군의 주요 무기체계 및 장비를 관망했다.

대통령은 5군단장 및 장병들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장비를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소총드론'을 보며 "드론 킬러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등 드론의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 세세하게 질문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행사에 참석한 군 주요직위자 및 한미 훈련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악수로 격려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훈련은 2015년 이후 8년 만에 대통령이 주관한 화력훈련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이기식 병무청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우리 정부와 군 측 주요인사 및 Paul Joseph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

Willard M. Burluson 美 8군 사령관 등 미군 측 인사,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기호 국방위원장 등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김승주·김판규·이승섭·하태정·이건완 국방혁신위원회 민간 위원들 등 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오늘 훈련을 참관한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은 "압도적인 모습의 아주 잘된 훈련으로 적은 공포를, 장병들은 자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국민들은 신뢰를 가졌을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광수기자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 주제로 지역 주민과 의견 나눠

경기도, 6월 21일 포천시를 시작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대상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 성장중심 변화의 중심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토론회

1포 천| 2023.06.21. (수) 14:00 포천 여성회관 청심홀
 1가 평| 2023.06.22. (목) 14:00 음악역1939 유적홀
 1남양주| 2023.06.23. (금) 14:00 남양주시청 제1청사 다산홀
 1구 리| 2023.06.29. (목) 14:00 구리시청 대강당

민선8기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공론의 장이 경기북부 10개 시·군별로 잇달아 열린다.

경기도는 6월 21일 포천시를 시작으로 7월까지, 경기북부 10개 시·군 대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순회하며 공직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는 공직자에 이어 각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경기연구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과제' 주제발표와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발표가 진행되는

다. 이어 소성규 대진대 교수를 좌장으로 시·군을 대표하는 분야별(학계, 사·도의원, 기업인, 시민대표·사회단체 등) 패널이 함께하는 자유토론회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첫 시작인 포천시 토론회에는 김덕진(사)포천미래포럼 회장, 김현철(이동초등학교)교장, 윤충식(경기도의원), 장용준(신평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가나다순)이 토론자로 나선다.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의 공감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찾아가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많은 도민께서 참여해 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군별 토론회는 6월21일 포천(14시/포천여성회관 청심홀), 22일 가평(14시/음악역1939 유적홀), 23일 남양주(14시/남양주시청 제1청사 다산홀), 29일 구리(14시/구리시청 대강당), 7월 4일 양주(10시/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 7월 5일 파주(15시/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 7월 20일 동두천(15시 / 동두천시 평생학습관 한울림공연장), 7월 21일 의정부(14시/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 7월 26일 연천(15시/연천군종합복지관 대강당)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개설, 경기도 공무원 공직자 설명회, 기업인·중고계 등 각계각층과의 간담 추진 등 도민 소통 강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여론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만식기자

한국의 미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안동**

안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3대 카테고리 보유 최초 도시

- 2010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마을'
- 2015년 10월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유교책판'
- 2018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산지승원 '봉정사'
- 2019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도산서원'
- 2019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병산서원'
- 2022년 11월 인류무형문화유산 한국의 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경북도의회, 2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경북혁신도시 활성화 전략 모색

경북도의회 '경북혁신도시발전연구회'는 15일 11시 경북ICT이노베이션 스퀘어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한 경북혁신도시 개발계획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북혁신도시발전연구회의 대표의원인 최병근 의원은 "경북혁신도시는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인 김천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 일극 중심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충지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경북혁신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 공공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유치 전략을 모색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밝혔다.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윤경식 교수(김천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균형적인 국토공간구조의 개편 계기가 마련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경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지역 특화 산업과 연관된 민간 기업을 유치하고 대학과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제시코자 한다."고 전했다.

최병근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진엽, 김창혁, 정한석, 조종진, 허복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경북혁신도시 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하는 본 연구용역은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며, 오는 9월 28일까지 4개월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경북도의회, '경북혁신도시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추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현장방문 실시

경주시의회는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중 주요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문화도시위원회는 16일 보문동의 지난해 조성된 도로 현장을 찾았다.

문화도시위원들은 도로과에 건설공사 품질 향상과 재해대비 도로 안전 관리를 당부했으며, 의회는 지속적인 현장 확인으로 부실공사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15일과 16일 양일간 상수도과 상황실, 덕동댐, 경주시 농기계임대 남부사업소, e-모빌리티 연구단지, 청년창업 지원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경제산업위원들은 상수도과에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고, 농업진흥과에는 농촌 인구 노령화 및 인력 부족에 따른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리고 투자산업과에는 e-모빌리티 연구단지가 경주시의 미래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약속했고, 일자리청년정책과에는 청년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마케팅, 사후관리 등 다양한 지원을 요청하며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희망했다.

윤태용/기자

전북도의회 도시재생연구회, 노후 공동주택 재생방안 마련 돌입

의원연구단체 도시재생연구회(대표 윤영숙 의원), 16일 노후 공동주택 재생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전라북도의회 도시재생위원회(대표 윤영숙 의원)는 16일 의원총회의실에서 노후 공동주택 재생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정민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30년 이상 공동주택이 중소도시 전체 가구의 20.4%에 해당되지만 사업성 등을 이유로 재건축이 어려운데다 가구의 연령이 높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센터를 통한 공공의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라북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 오병록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라북도의 경우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비율이 전체 아파트의 절반정도인 49.8%를 차지, 전국 평균 40.3%보다 약 10% 정도 높은 편이다. 법적으로 의무관리가 아닌 아파트인 경우 대부분 시설과 커뮤니티면에서 관리가 거의



이남출/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재 화재 대응 위해 남한산성 119지역대 현장 방문

광주소방서 남한산성 119지역대 방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6일 남한산성 화재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현장을 점검하고자 '광주소방서 남한산성 119지역대'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안계일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원(국힘, 고양7)·문형근(민중, 안양3) 부위원장, 박명숙(국힘, 양평1)·이기인(국힘, 성남6)·이서영(국힘, 비례)·김창식(민중, 남양주5)·정동혁(민중, 고양3) 위원이 참석했다.

남한산성 내에는 행궁, 수어장대, 연무관 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와 청량당, 현절사, 망월사 등 도지정문화재 8개소가 있으며, 지정 문화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다.

안전행정위원들은 남한산성을 돌아보며 문화재 주변 소방시설 비치 상태를 점검하고, 남한산성 119지역대 주요 업무현황 및

화재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남한산성 내에 문화재들은 모두 목조문화재로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빠르게 초기 진압을 하지 못하면 큰 화재로 번지기 쉽다"며, "문화유산 보호와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서 평소 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재가 나지 않는 것"이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해 관리하고 방문객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상임위 소관 조례 등 안건과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한식/기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도민 건강증진·안전확보 더욱 힘써주길"

기후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 승인... 이월액·불용액 최소화 강조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제345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2022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730억 6622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505억 7433만원이다. 그 중 7821억 929만원을 집행하고 673억 1700만원을 이월했으며 4억 5268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6억 95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보건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2억 9929만원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6억 3472만원으로, 그중 144억 8868만원을 지출하고 768만원을 이월했으며 1327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1억 25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용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여름철 우기가 다가오고 있고 홍수나 침수 피해가 최근 큰 지역 문제로 부각되는 만큼 도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집행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을 이월시킨 것과 관련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되, 기존에 계획된 대로 예산이 필요없을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관련 "'도민과 공감하는 환경교육 참여를 확대 사업'의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여 달성률이 과도하게 높게 나왔다"고 지적하며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설정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보조금 지급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화력발



전소 송전선로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 등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하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후정비 비율이 높음을 우려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 노후장비교체 예산 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환경안전관리과와 하천과의 경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미수납액이 발생했다"며 "사유별 미수납 현황 분석을 통해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언했다. 또한 집행률이 0%인 사업은 향후 연내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하

라고 요구했다.

양국영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하천과의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호우피해복구 사업'의 집행율과 사업비 이월금에 대해 "두 사업의 예산 이월금이 예산현액 대비 37%가 넘는다"며 사업 집행을 점검을 강화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기후환경국 결산 심의와 관련하여 계속비 이월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하천과 집행률이 72.1%로 기

후국 전체 집행을 95.43%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며 개선을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영향조사 연구용역'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과 관련하여 "고압 송전선로가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곧 도(廳)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며 "만약 도민들의 피해와 환경오염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한 예산관리와 사업계획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배출과 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시의 적절하게 해주어 감사드린다"며 "일본을 포함해 외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도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성 검사를 꼼꼼히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2022회계연도 결산사항에 관하여 이틀간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으며, 심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7일에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최정근/기자



대부분이다. 중소도시에 맞는 맞춤형 노후 공동주택 재생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공동주택의 유형별로 관리 및 재생정책을 별도로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는 부산 영주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정승창 사무국장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될 정도로 노후된 부산 영주동 영주아파트와 시민아파트의 재생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정승창 사무국장은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너무 많은 이권개입으로 정착 입주자들의 주거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생이든 정비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공동주택지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노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전북도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 관리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노후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숙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은 도시경관, 지역사회 활력도, 부동산 가격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하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도시재생 영역에서 공동주택을 배제해 온 만큼 지금부터라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 및 재생 분야 정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개정과 정책건의를 통해 도정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방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 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도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광고국: 1899.9659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홍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1회 '금천구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금천구는 6월 15일 구청 로비에서 금천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연합회와 함께 '제1회 금천구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을 개최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이 직업 활동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복지시설이다. 금천구에는 7곳의 시설이 있다.

금천구는 이날 행사에 앞서 구청 및 관련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으로 구매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대

해 교육했다.

또한 구청 로비에 생산품 홍보 부스를 설치해 구청 직원과 주민들에게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홍보했다.

아울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는 '동네방네 행복음악회'를 진행했다. 음악회에서는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금천가족오케스트라', 성악가 '김성결', '하나그린 음악회 심포니 송 공연팀'이 수준 높은 공연을 주민들에게 선사했다.

금천구는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실적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상위권(구매액 4위)이다. 이에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장애인 일자리창출과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구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구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을 축하하며, 우리구는 장애인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항상 응원하고 있다"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와 판로 개척 지원에 노력을 다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행복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서대문구, 서부선 102번 정거장 경제성 측면에서 명지전문대 앞이 유리

이성현 구청장 "정거장 이전으로 공사가 지연된다 주장 근거 없어"

서울 경전철 서부선 102번 정거장 관련 주민공청회가 16일 오후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서부선 102번 역사 위치 원상회복 위원회'가 서대문구에 요청해 이뤄졌으며 사회는 흥태의 흥은2등 주민이 맡았다.

첫 발표자로 나선 박진우 서대문구청장은 "실시단계 단계까지는 정거장 위치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102번 정거장은 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학박사인 김승현 미래교통이앤시 대표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명지전문대 주변 버스 승하차 연인원이 172만 명으로 용암초교 인근의 55만 명보다 117만 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교수는 "102번 정거장이 애초 계획에서 변경될 때 서대문구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역사 위치의 경제성 측면에서 명지전문대 쪽이 용암초등학교 인근보다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성복 서울시의원도 "경전철 정거장은 당연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부선 102번 정거장과 관련한 서울시의 사무처리와 행정편의주의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서부경전철 102번 정거장은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서부선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확정 고시된 대로 '명지전문대 앞'으로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와 민자사업자가 협상을 진행 중이고 아직 실시계획 이전인 만큼 정거장 이전으로 공사가 지연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600여 석에 이르는 행사장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서부선 102번 정거장 이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만식/기자

광진구, 중장년 1인가구 위한 '행복한 밥상' 운영

市 1인가구 지원사업 공모 선정, 건강한 식습관 돕는 요리교실 운영



광진구가 중장년 1인가구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행복한 밥상'을 운영한다.

'행복한 밥상'은 혼자 사는 이웃들이 함께 모여 요리하고 식사하는 소통 프로그램이다. 만성질환 발병률이 높은 중장년 1인가구의 건강을 지키고, 자연스러운 교류

기회를 만들어 소외감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것에 힘입어, 올해도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사업을 이어갔다.

대상은 중장년(만 40~64세) 1인가구 100명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4기수로 나눠 진행된다. 기수마다 3회씩 요리교실에 참여해 먹거리를 매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1회차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주제로 저염 음식을, 2회차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면역력을 높이는 요리를 만든다. 3회차는 언제든지 쉽게 조리할 수 있는 간편식

을 만들어본다.

이외도, '전통 장 담그기', '건강간식 만들기', '음식 독서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 12월엔 요리교실 참여자들의 변화된 식습관을 소개하는 '음식 공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상반기에 열린 1, 2기 요리교실은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한 참여자는 "혼자 살아 식사를 대충 때우곤 했는데 요리도 배우고 좋은 인연들을 만나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전했다.

하반기 3, 4기 요리교실은 9월과 10월에 운영된다. 기수별로 25명씩 모집하며, 참여 희망자는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02-450-1906)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구청장은 "혼자 사는 중장년 주민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챙기고 주변 이웃과 유대감을 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급증하는 1인가구 수요에 맞춰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원/기자

서대문구, 북아현1-1구역 재산권 행사 자유로워진다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처리로 개별 등기 후 매매, 대출 등 가능



서대문구는 이달 14일자로 '힐스테이트 신촌' 아파트가 들어선 북아현1-1재개발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준공인가 및 소유권 이전고시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북아현1-1구역은 아파트 15개 동, 1,226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2020년 8월 사용검사(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처리 이후 3년여간 구역 내 도로와 녹지 등의 정비기반 시설 보완이 필요해 준공인가를 받지 못했었다.

이에 따른 등기 미생성으로 그간 매매와 대출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그러한 문제점이 해결됐다.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관내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관계자와 적극 협의하고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구청과 조합(추진위) 간 공정 감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임대사업자 전국 최다 송파구, 잦은 법 개정 불이익 없도록 서울시 최초 '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 실시!

서구청장 "임대사업자 역량향상 위한 교육 실시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 챙길 것"

송파구가 잦은 법령개정과 정책변화로 의무사항 숙지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최초 '주택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장에는 신청인원을 넘어선 500여명의 임대사업자가 몰려 뜨거운 열기를 실감하게 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복잡하게 바뀌는 법령과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답답한 마음에 구청으로 전화를 주시는 임대사업자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속 시원히 설명해드리고 싶다"며 서울시 최초로 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송파구에서 관리하는 임대사업자는 2만 62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최근 임대사업자의 의무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구는 이를 미처 숙지하지 못해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록말소 등 불이익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교육에 참여한 대한주택임대협회 성창혁 회장은 "혼란스러운 정책 변화 속에서 임대사업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반드시 했어야 하는 교육을 송파구에서 준비해주어 대단히 반갑고 회원들의 관심이 높다"며 소감을 전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은 총 3부에 걸쳐 1부 '민간임대주택 제도와 공적의무', 2부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3부 '임대차계약의 법적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1부는 송파구청 주택관리과 담당자가 임대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



심으로 진행했다.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 공적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설명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2012년부터 송파구 송파동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정상업씨는 "구청 직원이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사안들을 위주로 조목조목 설명해주는 점이 인상 깊었다"며 "특히 배부해준 안내서는 구에서 배포한 그 어떤 자료 중에서도 보물 같았다"고 전했다.

이어 2부에는 양정훈 세무사(세무법인 충정 부대표)가 강사로 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보유세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자 세금감면 혜택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했다.

마지막 3부에서는 김성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자산 대표)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임대차계약 시 분쟁 방지를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임대사업자들을 위해 지난 5월 '임대사업자 준수사항 안내문'을 별도로 우편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총 10가지의 의무준수 사항과 신청 절차, 주요 세제 지원까지 필수안내 사항을 수록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임대사업자들께서 많은 변화에도 어려움 없이 공적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알려지겠다"며 "송파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임대주택 활성화와 임차인 주거안정에 힘써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이흥수/기자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결연의회



도민이 행복한 희망 경북! 경상북도의회가 만들어 갑니다.



경기도, 은퇴한 의료인재교육추진. 봉사활동, 공공의료분야서 활동가능

경기도, 16일 재단법인 라파엘나눔과 아카데미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가 재단법인 라파엘나눔과 협업을 은퇴한 의료인재 재교육시켜 사회 공헌 봉사활동을 하거나, 공공의료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안규리 재단법인 라파엘나눔 이사장은 1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아카데미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코로나19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는데 대응 시스템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수급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라파엘나눔과 함께 시니어 의사분들을 함께 교육하고 일할 수 있게 하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정말 시의적절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안규리 라파엘나눔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보다 많은 의료인들이 의료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서 사회

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라파엘나눔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적정 의료료 담당해줄 의료인력을 꾸준히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재단법인 라파엘나눔은 현재 현업에서 은퇴한 시니어 의료인들의 재교육 과정인 아카데미 사업을 하고 있다. 2019년 시행 이후 올해로 4년째 운영되고 있는 '라파엘 생명과 나눔 시니어 아카데미'는 사회공헌에 참여 의지를 가진 시니어 의료인을 봉사자로 양성하기 위한 재교육 과정이다.

해당 교육을 이수한 시니어 의료인들은 의료 현장의 자원봉사자나 해당 분야의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재단법인 라파엘나눔은 ▲아카데미 사업 운영 협력 및 홍보 ▲연수 교육기관 지정 지원 ▲공공의료 영역에서의 시니어 의료인력 지원 협력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나눔 시니어 아카데미를 수료한 의료인이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필요시 교육 장소 등을 지원하고 의료단체, G버스 TV,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보건 의료인과 도민들에게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오산시 중앙동 주민자치회 오이지 김치 100통 기탁... 관내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

오산시 중앙동(동장 신선교)은 지난 15일 중앙동 주민자치회(회장 모승배)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오이지 김치 100통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이 오이지는 지난 6월 초 중앙동 주민자치회와 중앙동 문화강좌 수강생, 중앙동 새마을부녀회 등이 참여한 행사에서 담근 김치로, 약 2주간의 숙성기간을 마치고 주민자치회원들이 김치를 정성을 담아 한 통 한 통 나눠 담았다.

이 김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모승배 중앙동 주민자치회장은 "중앙동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앞으로도 다

양한 방법으로 지속 노력하겠다"며, "많은 분들과 함께 열심히 만든 오이지를 여름내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신선교 중앙동장은 "더운 날씨에도 오이지를 담그기 위해 애써주신 중앙동 주민자치회 등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소외된 이웃 없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중앙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동 주민자치회는 그간 김장김치·삼계탕·떡국 나눔,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기탁, 마을 가꾸기 사업 등 중앙동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시현/기자

파주 대중교통 확~개선...준공영제 추진 등 속도낸다

특버스 확대, 시내·마을버스 공공성 강화 등 4대 핵심과제 추진



파주시는 6월 16일 초롱꽃마을 3단지 앞 도로 공사 현장에서 "대중교통 '확' 개선 추진사항 설명회 및 시승식" 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파주시 대중교통 정책방향과 추진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이날 현장설명회는 파주시의회 밖은 주 도시산업위원장, 최창호 의원을 비롯해 운영지역 사회단체장, 운영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마을버스 공공성 강화 ▲GTX-A 운영역과 연계한 노선 개편 ▲수요응답형 특버스 확대 등 총 4가지 핵심과제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렸다.

이날 김 시장은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실시한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주민 내용은 광역급행 M7154번과 직행좌석 5000번 노선 준공영제 전환 확정, 국토부 광역콜버스 공모사업 선정 및 국토부장관과 업무협약식 실시, 경기도 공공관리제 사업 참여의향서 제출 등으로, 시는 향후 본격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을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일부 비준공영제 운행 노선 준공영제 전환 운행과 마을버스 100% 준공영제 운영 성과 달성과 더불어 GTX 운영역 중점 시점에 맞춘 노선 개편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GTX-A 운영역과 연계한 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도시형 교통모델 7개 노선을 14개 노선으로 확대 운영하는 성과와 향후 GTX-A 노선 개편 시 연계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 중심의 노선 개편(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수요응답형 특버스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56억 원

추가 확보, 투입해 하반기 내 기존 10대에서 5대 증가된 15대를 운행 개시해 운영·교차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운영6동 주민 A씨는 "출퇴근 시 버스 부족으로 자녀를 비롯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최근 075번 마을버스 증차로 교통 불편이 해소된 것처럼 앞으로도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는 시의 대책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설명회 소회를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시민분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GTX-A 건설 현장 인근에서 시민분들과 함께 파주시 대중교통 정책 추진사항에 대해 공유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100만 파주의 밀그림부터 채색까지 시민분들과 함께 만들어 갈 계획이며, '시민 중심 더 큰 파주', '현장 중심의 소통하는 행정'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공감하는 파주시를 만들어가겠다"라며 설명회를 마쳤다.

한편, 설명회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초롱꽃마을 불편 해소를 위해 6대 84회에서 8대 111회 증차 운행 중인 075번 마을버스를 직접 시승해보는 행사를 가졌다.

한영기/기자



인천시, 인천·경기 공무원노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협력하기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협력 협약식 개최... 지자체 간 상호기부 및 챌린지 인증 병행하기로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이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과 자발적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인천광역시시는 16일 인천시청에서 인공노와 경공노간 고향사랑기부제 상호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할인로 제공하는 제도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는 해당 주민자치단

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특히, 인천시와 경기도 분청은 각각 타 지역 주민으로부터 기부금 모금이 가능하므로 관외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인공노와 경공노는 기부금 모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지자체간 상생과 동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협약식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윽고, 인천시와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부서에서도 상호 기부 및 챌린지 인증을 통해 양 지자체 공무원 노조의 행보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자체 간 고향사랑기부제 교차 홍보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협력할 계획이다.

임명택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경공노의 호응에 힘입어 오늘 고향사랑기부제 상호협력 협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로 자리매김할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기에 정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공노가 인천시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공무원 노조가 앞장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노조간 협약을 계기로 인천시와 경기도 양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화성시, 동탄지역 교통환경 점검 회의 개최

16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회의

화성시가 16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동탄지역 교통환경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영근 화성시장, 이원국 국회의원, 화성시 교통사업단장, 경기도 공공버스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주요 교통현안을 논의했다.

주요 현안으로 ▲화성시 특버스 개통 ▲동탄권 광역버스 인천공항 노선 연장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전환 ▲광역콜버스 도입 등이 다뤄졌다.

도비 7억 원을 포함 총 25억 원이 투입되는 화성시 특버스는 일정한 노선 없이 시민이 호출하면 찾아가는 수요 응답형 버스로 이달 말 동탄 12 신도시와 향남 12 신도시에서 시범운행을 거쳐 7월부터 정식 개통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완화 등으로 증가한 공항버

스 이용객에 맞춰 이달 말부터 동탄권 인천공항 버스 노선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호수공원 정류소가 검토됐으며, 서울행 광역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준공영제 전환 사업이 거론됐다.

시가 최근 국토교통부와 협약을 맺고 추진을 준비 중인 동탄 12신도시-사당간 광역콜버스와 이달 초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탄 2신도시-판교역 광역콜버스 사업 역시 공유돼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정영근 화성시장은 "동탄 1, 2신도시는 광역교통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라며,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다 쾌적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2023 이천도자기축제 평가보고회 성황리에 종료



이천시는 16일 제37회 이천도자기축제(4월 26일~5월 7일(12일간)) 종합결과 평가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평가보고회는 ▲제37회 이천도자기축제의 평가결과보고 ▲축제 발전방향 논의 ▲유망자 표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천시도자기축제실무위원회, 이천시데이터팀, 메가리서치의 종합 결과 분석을 기반으로 평가결과보고가 진행됐다. 축제방문객 조사 결과 작년 대비 이천시 지역 외 방문객 유입이 크게 증가했다. 전국 각지의 관람객 뿐 아니라 각국 외교 대사와 해외 교류도시를 비롯한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방문하여 이천 도자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데이터팀의 빅데이터 조사결과 이번 도자기축제에서는 전년도 대비 도자기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움츠렸던 도자기 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끝으로 이번 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한 이천시자원봉사센터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5월 가정의 달에 가정보다 시민을 위한 안전관리에 힘써준 소방서, 경찰서, 모범안전사회 등 35명에게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축제에 이천도자기축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진심어린 감사를 전했다.

"앞으로도 이천도자기 축제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주시길 바라며, 이천도자기축제가 계속 찾고 싶은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욱/기자

경기도-고용노동부, 고용 및 청년지원 연계 업무협약체결

16일 '고용 및 청년지원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6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고용·청년지원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중앙부처-지자체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경기도 청년들에게 경기도 청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한 통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도에서 운영하는 청년지원 서비스(청년면접수당, 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 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역시 고용노동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경기도의 청년지원사업을 안내해 경기청년들이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경기 청년들의 취업 활동 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 일 경험 및 취업 알선에 이르기까지 경기도와 고용노동부의 통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사각지대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은 협업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석중훈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장은 "양 기관 간 협력이 경기도 청년들에게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많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평택시 용이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홍보

평택시 용이동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지난 15일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환경 지도·점검 홍보 활동을 했다.

이날 활동에는 관내 초·중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일반 음식점 등을 방문해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행위를 점검하고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 및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위해 홍보 활동을 펼쳤다.

유지훈 청소년지도위원장은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만큼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



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하중 용이동장은 "청소년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걱정 없는 지역 사회로 만드는데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용인특례시,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위한 준비 돌입



수원시민이 선정한 '올해의 책', 함께 읽고 즐긴다

'수원시민 한 책 함께 읽기' 올해의 책 선정, 7월부터 11월까지 공연·강연·전시 등 연계 프로그램 운영

이상일 시장,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 제주 개막식 참석해 축하하며 "내년에 용인에서 만나자"



용인특례시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 제주' 개막식에 참석해 축하하고, 진행 상황과 내용을 파악하는 등 내년에 용인에서 열릴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제주 개막식엔 용인특례시에서 이상일 시장, 이영선 문화예술과장, 김혁수

용인문화재단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사말에서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유서 깊은 대한민국연극제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인사를 드린다"며 "다채롭고 훌륭한 공연들이 펼쳐질 제주에서의 연극제 진행 과정과 내용을 잘 살펴서 용인도 내년에 손색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연극제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연극을 더 많이 사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내년 이때쯤 용인에서 빛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이순재 원로배우, 손정우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등을 만나 내년도 대한민국연극제를 용인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지난 5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합 끝에 역사와 전통을 지닌 권위의 대한민국연극제 유치에 성공했다.

이순재 배우는 내년도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의 홍보대사를 맡기로 했다.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유치를 성사시킨 용인특례시는 15일부터 제주에서 진행 중인 연극제 진행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교류하면서 내년도 연극제 주제,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내년도 용인특례시 포은아트홀 등에서 선보일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은 ▲대한민국 연극제 본선 경연 ▲네트워킹 페스티벌 ▲학술행사 및 특별공연 ▲용인 시민의 '시민연극제' ▲전국대학생 연극 경연 등 제주 연극제에 없는 것들까지 포함시켜 다채롭게 꾸며질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최만식/기자



'수원시민 한 책 함께 읽기'로 '올해의 책' 6권을 선정한 수원시도서관이 7월부터 11월까지 공연, 체험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3년 문화도시 수원' 사업의 하

나인 수원시민 한 책 함께 읽기는 올해의 책을 선정하고, ▲공연 ▲강연 ▲독서프로그램 ▲체험 등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이 선정 도서를 함께 읽고 감동을 이웃과 나누며 공감하는 지

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독서 운동이다.

수원시민이 후보로 추천한 일반도서와 어린이도서 중 심사와 시민투표를 거쳐 함께 읽을 올해의 책을 선정했다.

올해의 책 선정 도서는 일반 부문 ▲'최재천의 공부'(최재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김지수) ▲'아버지의 해방일지'(정지아) 이며, 어린이 부문 ▲'검정토끼'(오세나) ▲'호랑떡집'(서현) ▲'긴긴밤'(루리) 이다.

7월부터 '올해의 책 독서 릴레이'와 도서관별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11월까지 올해의 책 코너를 상시 운영한다.

공연프로그램은 '최재천의 공부' 저자 최재천 작가와 올해의 책 북콘서트(9월 7일), '호랑떡집' 그림책 입체창독극(9월 16일)이 있고, 강연프로그램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김지수 작가와의 만남(9월 14일), '호랑떡집' 서현 작가와의 만남(9월 22일), '검정토끼' 오세나 작가와의 만남(9월 23일)이 예정돼 있다. '한 책 독서 피크닉' 등 체험·전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의 책을 선정해 수원시민이 함께 읽고 즐기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며 "책 읽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청송사과

대한민국 사과의 자부심!

청송사과의 첫 경매가격은 그 해 사과 시세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10년 연속 수상에 빛나는 청송사과.

수출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의 자존심, 청송사과.

사과는 빨갛다는 통념을 깬 혁신 브랜드, 청송황금사과 '황금진'.

청송사과는 대한민국 사과의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라오스 노동장관, 교류 협력 강화 위해 경북도 방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5일, 도청 집견실에서 바이캄 카타나(Baykham Khattiya)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을 만나 경북도-라오스 간 경제·농업·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교류 협력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경북도청을 첫 방문한 바이캄 카타나 장관은 2021년 3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에 임명되어 지난해 12월 이철우 고용노동부 장관과 고용노동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경북도는 라오스와 다양한 분야별 지속적인 교류 협력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라오스에 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있으며, 새마을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수의 연수생을 배출했다.

또 2017년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해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경북도는 라오스와는 4개 시군(김천시

'22. 10. 20., 안동시 '22. 12. 22., 영주시 '23. 02. 15., 영덕군 '22. 04. 01.) 과 계절근로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다른 지역과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시대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경북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입국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특화된 외국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나아가 외국인 숙련노동자와 유학생 우수인재를 확대 유치해 지역사회의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공동체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메콩강 최장관통국이자 인도차이나반도의 중심지인 라오스와 협력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 오늘 만남을 통해 경북도와 라오스가 실질적인 교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이철우지사 면담, 라오스 인력 경북 유치 등 외국인 교류 방안 논의



한울본부, 중소기업 판로지원으로 큰 꿈 함께해요!

2023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담회 시행해 상생협력 도모 박범수 본부장, "한울본부-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동반성장위해 노력"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 15일, 한울본부 본관 1층에서 '2023년도 한울본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구매상담회는 「중소기업의 큰 꿈, 한수원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발굴하고 판로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전국 각지에서 총 34여 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제품 전시와 구매 상담이 이어졌으며, 각 차·소·실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홍보부스를 찾아 제품설명 및 중소기업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울본부는 실질적인 제품 구매를 장려하고자 참가기업별로 기계, 전

기, 계속 등 상담 희망 분야를 사전에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발전소 직원을 각각 매칭하여 맞춤 상담을 진행했으며, 한울본부 자체 비대면 구매 상담 플랫폼을 통해 기업 제품을 상시 홍보하여 기업과 직원 양측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범수 본부장은 "이번 상담회를 계기로 한울본부와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울본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동반성장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귀어문화축제 현장점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협력 협약식 개최... 도로 불법점거 집회인 귀어문화축제, 시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집회 근절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 기대돼



대구광역시는 도로 불법점거 집회에도 그간 관행적으로 개최되어 온 귀어문화축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대중교통을 방해하는 도로 무단점거 집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을 세웠다.

귀어문화축제는 대구의 상징인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줄 수 있는 등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공공성이 없는 집회임에도 그간 관행적으로 도로를 불법점거하고 대중교통을 방해하여 왔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따라 경찰이 도로 불법점거 시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라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귀어문화축제뿐만 아니라 관행적으로 도로를 불법점거하여 진행해 온 집회에 단호하게 법적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경찰의 시내버스 우회운행 협조요청에 대해 대체도로가 없는 점, 시민의 불편이 큰 점 등을 이유로 시내버스 우회운행이 불가함을 공

문통보(2023.6.12.) 했고, 이에 대해 경찰 측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자 재차 적극적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2023.6.15.)했다.

이에따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 16일 오후 3시 45분, 귀어문화축제 예정지인 동성로 일대를 방문해 축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로 무단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직접 점검했다.

홍 시장의 이번 귀어문화축제 현장점검은 위에 언급드린대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거하여 진행해 온 집회에 단호하게 법적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차질 없는 정상운행을 당부하며, 시는 교통방해에 대한 행정대집행 시 중구청에 협조할 계획이다.

홍 시장의 이번 조치는 건전한 시민생활을 해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단호한 잣대를 가하므로써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집회 근절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거리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근수/기자



'미조 북항, 해질녘의 버스킹' 열린다!

6월 24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미조등대공원 일원

미조면주민자치회와 미조마을회가 주관하고 미조면행정복지센터가 후원하는 '해질녘의 버스킹'이 오는 24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북항 등대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해질녘의 버스킹'은 관내 음악인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자치회는 미조 북항이 간직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버스킹이 어우러지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미조등대공원 일원에서는 지난 달, '바다는 삶, 주민은 빛'이라는 주제로 플라마켓이 성황리에 열린 바 있으며, 지역민과 학생들

의 난타공연과 밴드공연 등이 펼쳐져 큰 인기를 모았다.

버스킹 공연이 펼쳐질 미조북항에서는 천연기념물 제29호인 미조리 상록수림과 야간조명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으며, 여기에 음악까지 곁들여지면서 미조항 특유의 해질녘 정취는 더욱 돋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미조면 관계자는 "오는 24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7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버스킹을 계획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천시, 공동주택 외벽 도색 지원사업 도시경관 up!

차별화된 색채 디자인, 입주민과 시민 큰 호응

영천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의 외벽 도색 사업을 지원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023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으로 관내 16개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부분 기능개선에 27억 원의 보조금을 책정해 지난 3월부터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이중 외벽 도색 사업에는 6개 단지에 18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색채 자문 방식을 도입해 공동주택 외벽 도색 시 배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도색안을 제공함으로써 영천시민의 특색 있는 도시경관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미 외벽 도색사업이 완료된 청구 1차 타운 등 3개 단지는 세련된 디자인과 차별화된 색채를 선보이며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도시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도시가로 경관까지 아름답고 밝게 변화를 가져왔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 생활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반식/기자

「더욱 새롭게!, 더욱 특별하게!」

50년 만의 외출! "태사길 플라마켓"

지난 17일, 중구동 태사광장 일원에서 '안동형 인사동 거리'를 만날 수 있는 '태사길 플라마켓' 3회차 행사가 열렸다.

"태사길 플라마켓"은 1970년대 안동시의 중요 거리장터가 열렸던 원도심 태사길의 역사적 의미를 더해 "50년 만의 외출!"이란 부제로 운영됐다.

웅부어울림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해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14:00~20:00까지 운영되며, 행사가 진행될수록 풍성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곳에서 '골동품·민속품의 전시·판매·경매'를 통하여 특색있는 체험을 선사하고, 태사묘~웅부공원까지 '안동시농·특산품과 각종 먹거리'를 판매하는

남원추어 차세대 CEO 아카데미 개강식 성공적 개최

플리마켓도 운영한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매 체험 '우리 집 숨은 보물전'과 과거 안동시의 모습을 추억할 수 있는 '근대 역사기록 거리 사진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3회차 행사에서는 웅부어울림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한옥마을 버스킹 레지던시"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멋진 마임 퍼포먼스 공연과 젊음의 열기가 넘치는 힙합 공연이 13시부터 태사광장에서 진행된다. 또한, 17시부터는 안동문화 예술의 전당 야외 공연 '여울소리'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 주최 측인 협동조합에서는 "오는 10월까지 볼거리 즐길거리 풍성한 태사길 플라마켓 행사가 진행되며, 특히 3회차에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더욱 새롭고 특별한 콘텐츠를 많이 준비했다"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해 즐거운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50년만의 외출! 태사길 플라마켓

운영기간: 2023. 5. ~ 10.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장소: 태사묘 앞 (웅부공원 주차장 주변, 일) 무료 주차

주최: 안동시, 안동문화재단

날짜	프로그램	시간
1회차 (05. 20.)	태사길 플라마켓	14:00 ~ 20:00
2회차 (06. 03.)	태사길 플라마켓	14:00 ~ 20:00
3회차 (06. 17.)	태사길 플라마켓	14:00 ~ 20:00
4회차 (07. 15.)	태사길 플라마켓	14:00 ~ 20:00
5회차 (07. 29.)	태사길 플라마켓	14:00 ~ 20:00
6회차 (08. 05.)	태사길 플라마켓	14:00 ~ 20:00
7회차 (08. 19.)	태사길 플라마켓	14:00 ~ 20:00
8회차 (09. 02.)	태사길 플라마켓	14:00 ~ 20:00
9회차 (09. 16.)	태사길 플라마켓	14:00 ~ 20:00
10회차 (10. 07.)	태사길 플라마켓	14:00 ~ 20:00
11회차 (10. 21.)	태사길 플라마켓	14:00 ~ 20:00

예천군, 2023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 수상

'클린예천 만들기', '2050 탄소중립' 캠페인과 자원순환 분야 성과 빛나



예천군은 에너지 경제신용사가 주관한 '2023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은 에너지 효율을 통한 에너지 절약 성과가 높고 기후변화 등 친환경 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한 지자체와 단체를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군은 '클린예천 만들기' 범군민 환경보전 실천 운동과 주민주도형 '2050 탄소중립' 캠페인, 그리고 '클린예천 보물마차' 등과 같은 혁신적인 자원순환 분야 시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엔 장관상을 받게 됐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지

만, 자발적인 주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리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주 후곡경로당, 전국 '모범경로당' 선정 쾌거

지난 16일, 전국 모범경로당 현판식 가져 선정된 전국 27개 경로당 중 경북도 내는 경주 후곡경로당이 유일해



경주 월성동 후곡경로당이 (사)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전국 모범 경로당'에 선정됐다. 후곡경로당은 지난 16일, 구승희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장을 비롯해 이동협 경주시의회 부의장, 김월선 경북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모범 경로당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모범경로당 선정은 전국 연합회별로 경로당 수에 비례해 추천받아 경로당 보조금 회계 투명성, 활성화 프로그램 충족 여부, 봉사활동 횟수, 임원 교육 이수 등을 기준으로 전국 27개 경로당을 선정했다. 후곡경로당은 공정하고 깨끗한 회계 관리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가 항목을 골고루 충족했으며, 노인자본봉사단 설치·운영으로 마을 환경 정화 활동, 독거노인 일손 돕기 등 꾸준히 봉사 활동을 이어 왔다. 특히 지난해 힌남노 태풍으로 침수된 주택 복구에 도움을 주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상금 30만 원도 수여 받았다. 구승희 경주시 노인회장은 "이번 모범 경로당 선정은 경북도내에서 우리 후곡경로당이 유일하다"며 "향후 경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타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으뜸경로당으로 더욱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손금택 노인복지과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환경개선, 스마트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경로당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 선용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동, 독거노인 일손 돕기 등 꾸준히 봉사 활동을 이어 왔다. 특히 지난해 힌남노 태풍으로 침수된 주택 복구에 도움을 주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상금 30만 원도 수여 받았다. 구승희 경주시 노인회장은 "이번 모범 경로당 선정은 경북도내에서 우리 후곡경로당이 유일하다"며 "향후 경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타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으뜸경로당으로 더욱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손금택 노인복지과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환경개선, 스마트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경로당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 선용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국립산림치유원- (사)스마트치유산업포럼 업무협약 체결

권영록 국립산림치유원장, "산림치유 역량 적극 활용 치유산업 활성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치유원은 지난 16일, 사단법인 스마트치유산업포럼과 치유산업 관련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국민의 건강 회복/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림치유를 바탕으로 자연치유 저변확대 정책과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대국민 산림치유 서비스 관련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치유산업 관련 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 운영 ▲자연치유 효과 검증 및 홍보 등 저변확대 ▲치유산업 종사자들

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치유원은 산림치유 서비스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에 힘쓰며, 치유분야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치유산업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권영록 국립산림치유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자연치유 저변이 확대되고 국내 치유산업이 활성화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치유원이 가지고 있는 산림치유 역량을 적극적 활용하여 치유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감염병 분야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감염성 질환 예방·진단검사 전문성 제고

경북도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구미 호텔 금오산에서 시군 보건소 감염병 검사 담당자 등 70여명이 참석, 『2023년 감염성 질환 예방·진단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감염병 분야 주요정책 설명 및 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업무별 사례발표를 통한 시군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군 간 교류를 통해 감염병 분야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감염성질환 조사·진단 유전자 포상을 전수하고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항생제 내성 감시 현황, 취약계층 등 감염병 선제검사, 도내 하수처리장 감염병 감시사업 추진 및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신종 감염병의 대량 발생에

비한 신속 정확한 진단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원과 시군 보건소 협력 및 업무 분담에 관한 열띤 토론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 그동안 감염병 분야 격차로 고생한 직원들을 위한 운동처방 특강을 실시하고 경북환경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숲체험에 참여해 잠시나마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손창규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신종 해외 유입 감염병 및 집단 식중독이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관리 일선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감염성질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군과 신속한 협조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경제부총리 만나 현안 사업 지원 요청

신공항 철도 및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등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 15일(목)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미래 50년 준비에 반드시 필요한 대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신공항 철도(동대구~서대구~신공항

~의성)건설,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동대구JC~동군위JC) 건설 등 신공항 접근로 확충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재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신공항 철도 건설 사업은 동대구에서 신공항을 연결하는 기간철도망 구축사

업으로 연장 64.6km, 총사업비는 2조 7,382억 원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항공 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촉진해 중·남부권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동대구JC에서 동군위JC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연장 30km, 총사업비 1조 5,000억 원이며, 대구 동부권과 경북 동·남부권의 공항 접근성 향상을 통해 공항 이용객 편의성 증대 및 물류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과 국립 구국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해 각각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내년도 사업비 3억 원 반영도 요청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은 국내 로봇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인 자체 실증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서비스로봇 산업의 글로벌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999억 원이며,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 로봇 실증 평가를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 모의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 구국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은 한

국 근현대사와 구국의 역사를 국내·외에 알리고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홍보 및 교육의 장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계성중학교 부지이며 총사업비는 2,530억 원이다. 완공이 되면 3·1만세 운동길, 계산성당 등 인근 역사문화현장과 연계해 역사탐방의 거점으로써 독특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상화로 입체화 사업 300억 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 200억 원, 시·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 치료기기 실증사업 지원 60억 원 등 핵심 사업들의 내년도 국비 반영과 함께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및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23년을 대구공기의 원년으로 삼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고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신공항특별법 통과로 새로운 하늘길을 열었고 이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에 거대 경제권을 만들어 미래 50년의 기반을 마련하려 하니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해수부, 영덕 해상케이블카 사업 '매립목적 변경 승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통과해 사업 현실화 앞당겨 해상케이블카 완공시 체류형 관광콘텐츠로 관광객 유입 극대화 김광열 군수, "2024년 준공해, 군 관광 경쟁력 업그레이드에 온신다할 것"

영덕군이 민간투자를 통해 야심 차게 진행 중인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지난 15일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승인 심의를 통과해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지난 1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정보과에서 규제혁신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가 진행된 안건으로,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지난 4월 영덕군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승인신청을 받은 이후 지난달 25일 이뤄진 매립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이달 8일까지 심의를 거친 결과 영덕군의 매립목적 변경 신청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 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 매립목적 변경할 수 없지만 주변 여건의 변화 등으로 매립목적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할 수 있다. 영덕 해상케이블카 조성은 민간 자본 336억 원을 투입해 삼사해상공원과 해파랑공원 사이 1.3km를 잇는 사업으로, 그간 사업 진행의 가장 큰 관문이었던 해수부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영덕군은 실시계획인가 등의 남은 절차에 속도를 높여 내년 상반기

기 안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최근 강구항 인근에 집중되고 있는 관심과 투자가 해상케이블카 완공으로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지역의 확실한 랜드마크이자 체류형 관광콘텐츠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관광객 유입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영덕군의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2023 울진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개최

울진군은 6월 17일부터 6월 19일,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백암다목적운동장에서 2023 울진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울진군이 후원하고 한국유소년축구클럽연맹이 주최, 울진군축구협회, 한국유소년축구클럽연맹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차 36개 팀, 2차 50개 팀 총 86개 팀의 1,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학년별로 5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6인제 및 8인제 경기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1월 첫 번째 대회보다 참가팀이 더욱 늘었다. 군은 천혜의 자연과 더불어 최상급 수준의 스포츠 인프라 조성에 노력을 기울인 덕분으로 보고, **장문화/기자**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회가 어린 선수들이 그동안 쌓은 실력을 마음껏 펼치고 축구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대회 기간 중 선수단과 가족들의 울진군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송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대회는 단순 일회성의 페스티벌이 아닌 진정한 축구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정식 전국대회로서,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과의 조화를 통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축제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울릉군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학포 개척 문화제' 개최

울릉군은 지난 15일 울릉도 학포마을에서 '제1회 학포 개척 문화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울릉도 개척 141년이 되는 해이다. 울릉도에는 3세기경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까지 왜구의 침탈로부터 섬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섬주민을 옥지에 이주시키는 공도정책을 폈으나, 조선 고종대 수도정책으로 이규원 검찰사를 보내 울릉도를 다시 개척하여 지금의 울릉군에 이르렀다.

1882년 울릉도를 개척한 이규원 검찰사의 업적을 기리고, 울릉도 개척사를 알리기 위해 울릉 주민으로 구성된 울릉 팟캐스트와 학포마을회, 울릉문화원이 함께 '학포 개척 문화제'를 개최했으며, '학포의 날 선전식'을 시작으로 '울릉도 140년 개척사 영상'상영과 사진전, 학속 축하 공연 등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했다.

본 행사를 기획한 울릉팟캐스트 임선자 회장은 "학포 개척 문화제는 단순한 문화제가 아니라 141년 전 그들과 현재 우리가 함께 공생하면서 이어 나가야 할

문화제이다. 본 문화제를 계기로 울릉 주민에 의한 '학포의 날'이 만들어져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포마을회 백운배 이장은 "울릉도 개척 역사를 학포마을 주민 스스로 문화제로 만들어 간다는 것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영광이고 뿌듯하다. 점점 잊혀져 가는 울릉도 개척사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이번 문화제가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적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본 문화제는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한 점 섬 울릉도에 살거나'중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울릉군이 후원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협연으로 진행하여 울릉 주민에게 의미있는 역사-문화 행사를 제공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축사를 통해 "학포 개척 문화제가 향후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마을 문화행사를 넘어 울릉도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현중,조강재 /기자



청송군,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향일의병 레퀴엠 "푸른 솔" 공연 개최

청송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6월 15일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향일의병 레퀴엠 '푸른 솔' 음악회를 개최했다.

경북타악인회에서 주관한 향일의병 레퀴엠 '푸른 솔'은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음악 공연으로, 향일투쟁에서 희생된 의병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심과 헌신을 기리고 잊혀가는 그날의 교훈을 되새겨 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일반인들의 클래식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고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공연은 지역 주민들이 청송향일의병 역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며, 아울러 문화생활을 영유하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소방동요 부르며 안전을 배우고 익힌다!!

제23회 경상북도 119소방동요경연대회 개최, 21개팀 참가 열띤 경쟁 펼쳐

경주 현대유치원·성주 수륜초 대상 수상, 전국대회도 대표 참가

이영팔 소방본부장, "어린이가 안전 환경에서 성장토록 안전프로그램 개발"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14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제23회 경상북도 '119소방동요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단체 관계자, 지도교사, 학부모 등 850여명이 참석해 소방동요 경연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팀을 격려했다.

'119소방동요경연대회'는 동요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의 중요성을 배우고 익히며 스스로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키워주는 어린이 안전문화행사다. 이번 동요대회는 경북 유치부 11팀과 초등부 10팀, 총 21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으며, 또 대회 중간에 마술쇼, 밴드 공연 등 참가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도교사, 학부모도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벤트도 다양하게 선보여 축제 분위기를 높였다.

이번 대회 대상은 경주 현대유치원과 성주 수륜초등학교가 차지해 경상북도교육감상을 수상했고, 9월 20일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 119소방동요 경

연대회에 경북대표로 참가해 각 시도 대표 팀과 실력을 겨루게 된다.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은 "어린이는 미래의 꿈나무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연대회에 경북대표로 참가해 각 시도 대표 팀과 실력을 겨루게 된다.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은 "어린이는 미래의 꿈나무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윤근수/기자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 부산, 철도산업의 최첨단 기술 전시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모델 등 최첨단 기술 선보여

'2023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RailLog Korea 2023)'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벅스코 제1전시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세계 4대 철도산업 전문전시회이자 국내 유일 철도 관련 전문전시회로 올해 11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총 14개국, 120개 사 970개 부스가 참가했으며, 마지막날인 17일엔 일반인들도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와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KORAIL)·주식회사 에스알(SR)이 공동주최하고, 벅스코·메세프랑크푸르트코리아·한국철도차량산업협회(KORSIA)·한국철도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부산시가 세계 최

초로 도입하는 저탄소 친환경 수소철도 차량인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모델'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BuTX는 세계박람회와 성공 개최를 이끌어낸 핵심 기반으로, 가덕도신공항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지인 북항까지 15분, 해운대 오시리아까지 26분 만에 돌파하는 초고속 열차이다.

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주)SR, 부산교통공사 등 철도기관은 물론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 국내외 철도차량 제조사들이 대거 참여해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부산홍보관 운영, ▲다양한 부대행사로 대면



진행하는 수출상담, ▲최첨단 기술을 엿볼 수 있는 기술 세미나, ▲철도 공기업대기업이 함께 진행하는 철도채용설명회 등이 함께 마련돼 철도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자라민 만큼,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송준진/기자

창원특레시, '도심항공교통 산업육성 전문가 세미나' 개최

창원특레시는 16일 오후 2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표자로 초청된 이대성 항공안전기술원장, 임태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어모빌리티 연구본부장, 이병서 경찰대 국제대테러연구센터장은 UAM 개발 동향 및 도전과제, UAM 최근 동향 및 ICT 융합 전략, 세계테러 현황과 드론 테러의 대응이라는 3가지의 주제를 각각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창원산업진흥원(원장 장동하) 주관으로 김영선 국회의원(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도심항공교통 전문가들과 관련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UAM 정책 동향과 이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창원특레시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과 기술, 사업화 방향 도출, 관련 종사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UAM은 전기로 구동하는 비행체 기종의 교통

수단으로 도심에서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다양한 육상 교통수단과 연계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목표로 UAM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전국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첨단 정밀기계 부품산업 집적을 바탕으로 국내 UAM산업을 선도하고, 창원국가산단과 새물결 조성예정인 국가산단 2.0, 마산자

유무역지역과 진해국가산단 등의 지역 내 산업 단지를 진해신항과 가덕도공항까지 연결하는 도심항공교통 물류서비스체계 구축을 목표로 실증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특레시장은 "이번 세미나는 UAM산업에 도전하는 창원특레시의 의지를 보여주고, 관련 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뜻깊은 자리이다"며 "정기적으로 이런 행사를 열어 정책 방향성을 점검하고 창원원이 도심항공교통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재현/기자

영주 선비세상의 새로운 시도 '기획공연-풍류한마당'

국악 중심 다양한 콘텐츠 구성... 18일부터 4주간 일요일마다 개최

K-문화 테마파크 영주 선비세상이 지난 18일부터 4주간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기획공연 풍류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국악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한 선비세상의 새로운 시도로 한국적 정서와 쾌적한 분위기 연출이 가능한 풍류홀에서 7월 9일까지 진행되며, 풍류한마당은 지난 18일 가야금 이주인, 아쟁 조결, 서도소리 장효선 '3인3색 3색3색'을 주제로 문을 열었다. 첫 번째 공연에서는 영산회사의 한 갈래인 '평조회상'과 가야금의 특수주법을 다양하게 사용한 황병기 작곡의 '침향무'와 아쟁의 원초적인 슬픔이 묻어나는 '아쟁산조(박종선류)',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서도지역)에서 전승되던 민요나 잡가인 '수심가' 등을 연주하며 서로 다르지만 한데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두 번째 공연은 25일 통소 연주의 달인 최윤택을 필두로 가야금 이희진, 가야금 병창 김인숙의 무대로 꾸며진다. 이날 공연에서는 최대섭 지부장의 해설과 함께 '관악영산회상'의 첫 번째 악곡인 '상령산'과 새타령' 등이 연주된다.

'위대한 우리소리'를 주제로 한 7월 2일 세 번째 풍류한마당에서는 창작곡 위주의 국악 연주를 들을 수 있다. 거문고

의 화려한 기교를 엿볼 수 있는 '무영탑 無影塔'(정대석 작곡)은 젊은 국악인 이성원의 연주로, 닭의 울음소리를 해금으로 표현한 '계명곡鷄鳴曲'(김영재 작곡)은 경북도립국악원 해금 차석 정경란의 연주로 펼쳐진다. 이날 공연은 고수 이진수가 함께 한다.

풍류한마당의 마지막 공연이 예정된 7월 9일에는 국악협회 영주시지부를 초청, '국악의 향연'이 펼쳐진다. 단소 최대섭, 대금 이을상, 통소 최윤택, 해금 김민정 등이 출연하며, '천년만세'로 시작해 우리 귀에 익숙한 메들리가 이어지는 풍성한 구성으로 풍류한마당의 대미를 장식한다.

김일훈 소수서원관리소장은 "이번 풍류한마당에서는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우리 국악을 고즈넉한 한옥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선비세상이 제공할 다양한 볼거리와 색다른 경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새로운 소식은 선비세상 인스타그램 공식계정(sunbeeworld.official)과 홈페이지(www.sunbeeworl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근수/기자

06.18
일요일 오후 4시
선비세상 풍류홀 1
주최·주관 연방

06.18
풍류한마당 1
삼인삼색
가 아 금이주인
야 병조결
서도소리 장효선

06.25
풍류한마당 2
산내들의 소리
통에깨물
통 소 최윤택
가야금 병창 김인숙
가야금 이희진

07.02
풍류한마당 3
위대한
우리소리
해 금 정경란
거문고 이성환
고 수 이진수

07.09
풍류한마당 4
국악의 향연
단 소 최대섭
통 소 최윤택
해 금 김민정
대 금 이을상
가야금 병창 김인숙
가야금 이희진

☎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선비세상로1 ☎ 종합안내소 Tel. 054-630-9700

의성, 안계농협 비안 벼 건조저장시설(DSC) 준공식

김주수 의성군수, "유통망 확충 및 홍보 강화에 힘써 줄 것 당부"

의성군은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안계농협 비안 벼 건조저장시설(DSC)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15일,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한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안 벼 건조저장시설(DSC) 준공식을 개최했다.

비안 벼 건조저장시설(DSC)은 총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해, 비안면 이두리 32-1번지에 부지면적 3,705㎡, 건축면적 1,137㎡로 시간당 30톤을 투입할 수 있는 원료투입 시설과, 30톤 용량의 순환식 건조기 4대, 500톤 저장시설 3기 등을 갖추고 신속했다.

의성군은 비안 벼 건조저장시설(DSC) 준공으로 비안면에서 생산되는 벼의 상당량을 저장해 기존에 안계농협 RPC까지 운반해야 했던 쌀 생산 농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과 의성쌀 가치향상/치열한 쌀 시장에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비안 벼 건조저장시설(DSC) 준공으로 고품질쌀 생산 기반구축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통망 확충 및 홍보강화를 당부했다.

정금자/기자



이철우도지사, 우박피해 농가 등 긴급지원 특별지시

신속한 복구 및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행정적 지원 총력 긴급복구 예비비 50억원, 경영안정 저리자금 100억원 우선 투입 긴급복구 예비비는 ha당 20만원, 경영안정자금은 농가당 500만원 지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대규모 발생한 우박과 지난 봄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한 냉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2차 피해 최소화 방안을 긴급히 마련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5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생육저하, 품질저하, 결실 불량 등 농작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생육촉진제, 영양제, 비료 등 영농자재 구입비를 피해농가에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면적은 총 2만5천ha이며 지원기준은 ha당 20만원이다. 더불어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 자체지원

농어촌진흥기금 100억원을 확보해 농가당 500만원을 1% 저리로 지원키로 했다.

또 가을 수확기에는 우박 피해 등으로 상처를 입은 중.저급품 사과에 대한 가공용 수매 실시로 가격하락 방지와 농가소득을 선제적으로 보전 해주고, 이상기온으로 재해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서리방지 시설 지원 등을 보다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15일 현재 경북도의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6.8~6.12 우박으로 인한 피해 1천712ha와 4~5월 5차례에 걸친 냉해피해 2만886ha 등 총 2만2

천598ha에 이른다.

작물별로는 사과, 복숭아, 자두 등 과수 2만1천973ha, 감자 109ha, 고추 174ha 등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특히 개화기와 과육기에 들어선 과수 피해가 대부분으로 과수농가의 상실감이 상대적으로 크다

경북도는 이번 지원과는 별개로 6월 말 중앙정부의 복구계획과 복구비가 최종 확정되면 재해복구비 기준에 따라 ha당 249만원(과수기준)의 농가당와 농가별 피해율이 50% 초과되는 경우 4인 가족 기준 130만원의 생계비를 피해농가에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율이 30% 이상으로서 농축산경

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이자감면과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 50% 이상 2년)도 추진되며, 별도 경영자금 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추가 지원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 기상으로 농가가 큰 피해를 입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신속한 복구지원에 가능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고, 시군.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가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TF)」 회의 개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민·관·정이 하나로 손을 맞잡다

부산시는 지난 16일,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한국산업은행의 효과적 부산 이전을 위해 민간, 부산시, 여·야 정치권 역량을 총결집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TF)」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정 협력 전담팀」은 지난 달 3일, 국토교통부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로 산업은행 이전이 첫발을 떼면서, 시가 경제계, 여·야 정치권, 시민단체 등 「민·관·정 협력 전담팀」 구성을 제안, 협력을 요청했고, 여·야 정치권, 경제계, 시민단체도 적극 동참하기로 하여 출범하였다.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 ▲서병수, 김도읍, 김희곤, 정동만,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과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 ▲박재을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조용연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회의는 ▲기념촬영, 개회 ▲인사말씀

▲추진상황 및 과제 보고 ▲중합토론 순으로 진행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최대 현안인 「한국산업은행법」의 신속한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이전 규모, 범위 등)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등 이점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았다.

향후 「민·관·정 협력 전담팀」 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팀 산하에 실무협의체를 두어 산업은행 이전추진 상황 파악, 실행방안 협의 등 민·관·정이 한 팀이 돼, 산업은행의 효과적 부산 이점을 위해 공동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부산과 서울 양대 성장축 형성을 통한 대한민국 혁신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획기적인 계기(모멘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민·관·정 협력 전담팀의 초당적 전방위 활동을 통해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원활히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영덕군 민선 8기, 매니페스토 특강으로 공약사업 가속화

민선 8기 체계적 공약사업 추진 위해 내부 역량 강화

영덕군은 민선 8기의 효과적인 공약 추진을 위해 지난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약사업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매니페스토 특강을 개최했다.

매니페스토란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에 의해 처음 제시된 정치운동으로,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에 대해 목표와 이행 가능성, 이행 방법, 예산 확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특강은 영덕군 민선 8기의 체계적인 공약 실천 방안과 우수사례를 배우고 연구함으로써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매니페스토와 민주주의, 미래도시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과 함께 공약 실천을 위해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며,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 추진과정을 세심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특강을 계기로 공약사업을 더욱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초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전 공무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해 군민과 함께 영덕군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덕군은 민선 8기 5년간 총 2,763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5개 분야 46개 공약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민선 8기 첫해였던 지난해는 공약 실천 주민배심위원단의 논의를 거쳐 체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지난 4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약 실천 계획 평가'에서 경북 군 단위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은 바 있다.

장문화/기자

내 손으로 심고, 따고, 먹고! 즐거운 귀농생활, 봉화에서 가능합니다

경북 최북단에 있는 봉화군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오지 중 한 곳이다. 천혜의 청정 자연환경을 소중한 지켜온 지역으로 청량산, 청암정, 백두대간수목원 등 빼어난 경관을 가진 곳이 많다.

인문학 최고 베스트셀러 작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봉화를 '외지인의 상처를 받지 않고 옛 이끼까지 곱게 간직한 살아있는 민속촌'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자연을 자랑한다.

군 전체면적의 83%가 산지로 이뤄져 있어 고령지 농산물 재배에 특화돼 있으며 봉화가 자랑하는 3대 작목인 사과, 고추, 수박은 국내 최고의 맛과 품질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봉화에 이끌려 귀농귀촌하게 된 인구는 해마다 평균 415명이다. 많은 이들이 봉화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한적하고 청정한 자연 속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봉화군도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역 밀착형 체험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봉화에서 미리 살아보고 귀농귀촌 결정
봉화군에서는 농촌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고 계획한 귀농을 직접 현실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봉화군 전원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봉화군 전원생활체험은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만 18~65세 이하의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계절마다 1박 2일 동안 전원생

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도시민을 유치하고 귀농귀촌지 봉화군을 홍보하기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봉화군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겪으며 직접 농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봉화 정착의 특징점을 홍보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5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 영농체험, 지역축제 참여, 지역탐방 등으로 구성된 1박 2일 계절별 귀촌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올해 개최 예정인 봉화 전원생활 포럼에도 초청되어 체험 소감과 후기를 발표한다.

지난 5월 13일 진행된 봄 편에서 참가자들은 딸기농장을 체험하고 봉화목재문화체험장을 견학했으며 땅콩, 옥수수, 고구마 모종을 직접 심는 영농체험의 시간을 보냈다.

오는 7월에 진행될 여름 편에서는 봉화는 어족에게 참여해 지역축제를 즐기고 옥수수 따기, 제조작업 등의 영농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최장 3개월간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참가자들은 3개월간 봉화 소천면 협곡 구비마을에서 생활하며 여러 선도농가를 견학하고 봉화군 주요 명소를 탐방하는 등 주로 농촌이해, 지역교류.탐색, 영농실습으로 구성된 귀촌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월 30만 원의 연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작년 농촌에서 살아보기에 참가한 8가구 중 3가구가 봉화군에 정착한 만큼 올해 역시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봉화군의

인구 활력을 되찾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봉화 전원생활학교'는 귀농귀촌 기초과정으로 연 7회 기수당 30명을 모집해 상운면 한누리전원생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2박 3일 합숙과정으로 진행되며 도시민들에게 전원생활에 대한 교양 강좌와 농촌 문화, 선도농가 견학 등 농촌생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공적인 귀농귀촌 준비를 위한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까지 87기 2,208명이 수료했으며 많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마지막으로 봉화전원생활학교의 심화과정인 '봉화 비나리귀농학교'는 2013년부터 영호연 청량산비나리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영농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귀농 준비 및 실행 단계에 있는 귀농인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5기 1,045명이 수료했다.

올해는 10월까지 총 5회 매회 20명 내외의 교육생을 모집해 운영되며 5박 6일 동안 선도농가 방문 현장실습, 영농이론, 소양교육, 농업관련 시설견학 뿐만 아니라 귀농 10년 차 이상 선배들의 성공한 귀농 사례를 전수받을 수 있다. 귀농귀촌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도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보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봉화로의 귀농, 전 단계에 걸쳐 안정적인 정착 지원
봉화군은 2008년부터 일찍이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해 귀농인을 위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귀농귀촌 교육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초기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선도농가와 신규농업인이 멘토-멘티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규농업인은 5년 이상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선도농가의 농장에서 영농기술과 품질관리 노하우, 경영·마케팅 등을 전수받으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봉화군에서는 귀농인에게 농촌사업 인센티브도 더욱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기준에 추진하고 있는 이사비용, 정착장려금 등의 지원과 함께 전액 군비로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작년 5농가 대비 10농가 늘어난 15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4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해 귀농인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확충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귀농귀촌 문화 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귀농·귀촌 민원지원센터를 운영해 귀농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으며 읍면 귀농지원 활동 전담농가(귀농인 멘토)와 연계한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올해는 11월 중 봉화 전원생활 포럼을 추진해 최근 봉화군 귀농·귀촌 실태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봉화군 귀농·귀촌 정책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귀농·귀촌지로 봉화군을 선택한 도시민을 위해 살고 싶은 봉화, 활력 있는 봉화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담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문경시, '2023년 사랑의 딸감 나누기' 시행

문경시는 숲 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물을 수집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딸감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랑의 딸감 나누기'를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딸감 나누기를 통해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30여 톤을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읍·면·동으로부터 추천받은 14 가구에 6월 말까지 전달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딸감 나누기는 경기침체와 고부가가치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어 주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김동영 산림복지과장은 "산림사업으로 발생하는 산물을 수집

해 딸감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숲 가꾸기 산물을 딸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흔쾌히 동의해주시는 산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딸감 나누기를 확대해 따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전남도, 서남권 관광·첨단전략수산업 활성화 탄력

반도체·이차전지·관광 등 8개 기업과 2,784억 규모 투자협약

전라남도는 1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서남권 8개 기업과 첨단전략산업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2천784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과 양오열 동진기업(주) 대표 등 8개 기업대표, 박홍률 목포시장, 김성장흥군수, 김성훈 무안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등이 함께했다.

서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안 삼향읍 왕산리 일원에 '(유)한강개발'이 2026년까지 752억 원을 투자해 리조트를 건설한다. 또 '경보건설(주)'은 완도 신지면 일원에 휴양콘도미니엄을 2026년까지 1천27억 원을 들여 건립한다.

수산업 재도약을 위해 '바다씨푸드'가 2024년까지 70억 원을 투자

해 장흥 바이오산단에서 자속곡막살을 생산하게 되며 '복소소금(주)'은 2024년까지 137억 원을 투입해 영광 영광을 덕호리 일원에 벗짚가마니 3년 숙성 천일염 제조 창고를 구축한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선 '(주)세원하드페이징'이 2024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해 목포 세라믹산단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에 사용하는 세라믹 코팅분말을 제조하며 미래전략산업인 이차전지 관련 기업인 '동진기업(주)', '(주)제이케이베스트', '(주)정테크놀로지'는 합평 빛그린산단에 입주한다. 동진기업(주)은 560억을 투자해 원통형 이차전지 설비 제조, (주)제이케이베스트와 (주)정테크놀로지는 동반입주 협력기업으로 각 69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조



립설비용 부품을 가공 제조하게 된다. 전남도는 ▲에너지·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집중 육성 ▲3조 원 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의 체계적 추진 ▲서남권 신활력 프로젝트 일환인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 목포~무안 전남형 트램 도입 등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을 통해 기반 시설을 갖추며 투자할 맛 나는 전남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차전지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의 핵심인 관광산업, 전남의 명품 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남권에 투자가 결정됐다"며 "기업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임시 운영

반려동물 친화도시 완성을 위한 첫 출발

순천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거점 공간인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지난 7일부터 임시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임시운영 기간에 애견 샤워실, 애견 실내놀이터(중·소형견, 대형견) 시설을 일부 개방하고 반려동물 산책교실 및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반려인과 반려견이 반려동물 문화센터 이용에 불편한 점 및 개선 사항 등을 의견수렴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시민, 관심이 있는 예비 반려인들 누구나 방문 및 전화 사전 예약으로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반려동물은 동물등록과 종합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시는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문화를 선도하는 남해안권 거점 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과 오전그린광장 등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전국 반려인들이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존중의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라며 "많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찾아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설 이용 및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동물자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준/기자

윤병태 나주시장, UAE두바이 농특산물 수출 세일즈

나주시, 두바이 유통업체 '1004 GOURMET'와 100만 달러 규모 농특산물 수출 협약

윤병태 나주시장의 지역 농특산물 수출 상품 세일즈가 또 한 번 빛을 발했다. 지난해 미국 한인 유통업체에 이어 올해엔 중동 물류의 허브 아랍에미리트(UAE)에 농특산물 수출길이 열린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15일 UAE 현지 한인 유통업체인 '1004 GOURMET'에서 100만 달러 규모 농특산물 수출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지난 14일 출국해 2박4일 일정으로 UAE농

GOURMET(회장 신동철)에서 100만 달러 규모 나주시 농특산물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윤 시장과 문 총영사관, 신동철 1004 GOURMET 회장, 김혁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 두바이 지사장, 지역 업체 4곳 대표·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나주시와 1004 GOURMET은 나주산 농·수산물품 두바이 현지 유통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농특산물 판로 확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산물 수출 판로 모색에 나섰다. 방문단에는 김해원 시의원과 수출 참여 업체인 나주배원에농협, 골든힐, 완도물산, 가보팜스 대표, 유통행정팀 직원 등 11명이 함께 했다.

윤병태 시장은 15일 첫 공식 일정으로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찾아 문병준 총영사관과 면담을 통해 지역 농산물 수출, 판로 확보 활성화를 위한 상담회를 주재했다.

윤 시장은 김혁 aT두바이 지사장에게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 할랄 축산물 수출을 위한 타 국가 사례, 할랄 인증 도축장 등의 설명 듣고 나주 한우와 연계한 중동시장 수출 방안도 논의했다.

윤 시장과 방문단 일행은 16일에는 UAE 최대규모 청과물 시장(Central Fruits and Vegetables Market)을 탐방했다.

특히 시장 내 aT가 지원·운영하는 한국산 신선 농식품 홍보관인 'K-Fresh zone'을 방문해 나주 농·특산물 현지 홍보와 중동시장 공략을 위한 관계자 협의를 진행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수출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영사관 방문에 이어 윤 시장은 UAE 두바이 한인 유통업체인 1004

김영만/기자

남원시, 2024년 국비 확보 위한 기재부 심의 대응 주력

13일 최경식 시장 기재부 방문 예산 증액반영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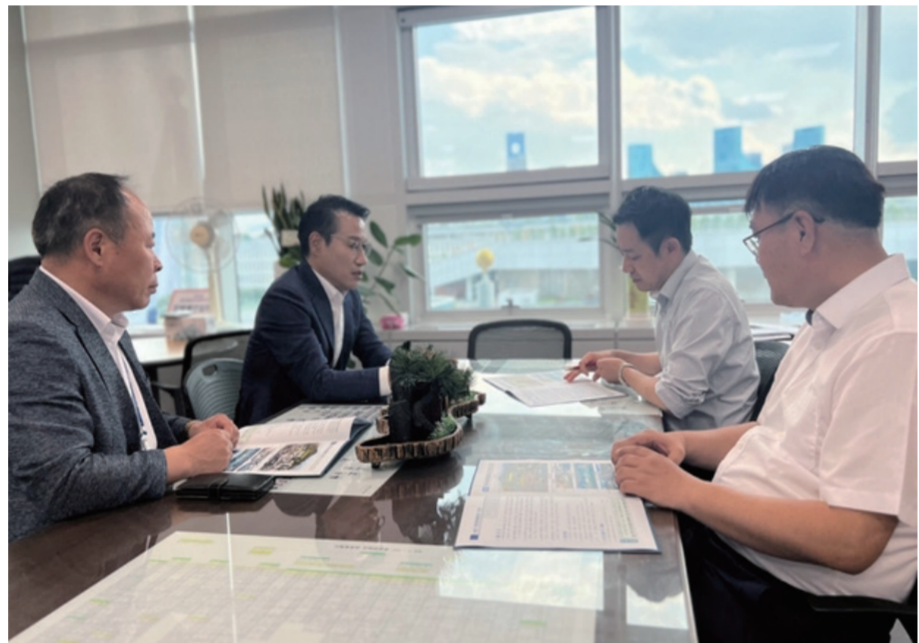
남원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기재부 예산심의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남원시의 2024년도 국비요구액은 전년대비 520억원이 증가한 2,302억 원 규모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심의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원시는 국가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난 2월부터 최경식 시장을 비롯한 본청의 과장들은 주 1회 이상 전복도 및 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설명과 국비 지원을 건의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립 지리산 등산학교 건립(총사업비 80억원),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490억원),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783억원), ▲노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50억원), ▲부절지구 배수개선사업(130억원) 등 다수의 중점사업이 부처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부 긴축재정 기조로 요구액 대비 과소 반영되거나 일부 사업은 부처예산안에 미반영됐다. 또한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 만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 설득작업을 게을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남원시는 부처예산안 편성 결과를



분석하여 기재부 예산심의 대응 전략을 세우고 예산확보를 위한 대응을 시작했다.

먼저, 13일 최경식 시장은 기재부를 방문하여 예산심 관계자를 차례로 만나 지역발전

을 강조하고 기재부 심의 시 남원시 사업에 대한 긍정적 검토와 증액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공모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남원시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남출/기자

함평군, "698억원 규모" 서남권 3개 기업과 투자협약 체결

신규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동진기업(주)은 빛그린산업단지 입주 예정 업체로 미래 신사업을 선도하는 2차전지 관련 제조업 운영으로 전년도

(10,807㎡)에 2차전지·진공펌프·슈퍼커패시터 부품을 가공(조립)하는 제조공장을 신축한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동진기업(주)은 향후 4개 이상의 협력사를 유치해 국가 신사업 동력인 2차전지 설비 제작 분야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관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에 적극 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양오열 동진기업(주) 대표는 "고향인 함평에 투자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준 기업들에 감사드린다"며 "군에서도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전남 함평군이 동진기업(주), (주)제이케이베스트, (주)정테크놀로지와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함평군은 "전남도와 함께 동진기업(주) 및 협력사인 (주)제이케이베스트, (주)정테크놀로지와 698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16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군은 이번 대규모 협약 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2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0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번 투자로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진공펌프를 국산화하고, 차세대 저장 장치인 슈퍼커패시터의 해외 수출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주)제이케이베스트와 (주)정테크놀로지는 138억원을 투입, 빛그린산단 부지



전북도, 전국 최초 '식품산업 전담 일자리센터'개소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내 개소, 전북산학융합원 전담 수행

지난 5월 식품산업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하는 '전북 익산형 일자리사업'이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선정된 가운데 도내에 전국 최초로 식품산업 전담 일자리센터가 문을 열었다.

특히 식품기업은 2022년 기준 도내 제조업체의 21.1%를 차지하는 대표 산업임에도 상시적 구인난을 겪고 있어, 일자리센터가 이러한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전북도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5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층에 '전북식품산업 일자리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식 전라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이경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나석훈 전북산학융합원장, 안진영 국가식품클러스터임주기업협의회장, 정호석 (주)하림 대표 등 식

품일자리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표명했다.

전북식품산업 일자리센터에는 총 사업비 5억 원이 투자되며 전북산학융합원이 사업 수행을 담당한다. 5명의 전담 컨설턴트가 식품산업 생산직 구직자를 중점 발굴해 연계하는 등 산업수요 맞춤형 전담 일자리센터라는 점에서 그간의 기반 시설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인구직 통계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으로 전라북도 식품기업의 구인충원률은 6.2%(구인 : 883명, 취업 : 55명, 미취업 : 82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착화되고 있는 구직자들의 식품산업 기피현상과 함께 코로나 19 이후 밀키트 등 신규시장 성장에 따른 구인수요가 크게 늘면서 식품산업 내의 노동시장 수요 공급간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전북식품산업 일자리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단위 이상단·부녀회장 등과 일자리 협력망을 구축해 비경제활동인구를 중심으로 잠재 구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 식품 현장 동영상 제작해 직관적으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동강도, 작업환경 오해 등 식품산업 기피요인을 불식하는 노력을 병행해 구직자에게는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기업에게는 정책체감도 향상을 도모한다.

김영식 전라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전북도는 조선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한 전북조선업도약센터, 농가일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로컬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식품산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한 전북식품산업 일자리센터를 개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향후 지원조직 확대 및 창업지원사업, 채용연계사업, 기업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사업으로 육성해 전라북도 식품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석훈 전북산학융합원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산업단지 조성사업 선정과 전북 익산형 일자리사업 선정 등 전라북도의 식품산업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전북식품산업 일자리센터가 전북 식품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완도 발전 이끌 아이디어 공모합니다!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인구 일자리 정책 등 7월 2일까지 아이디어 공모

2023 완도군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6. 12. (월) ~ 7. 2. (일)
 공모분야: 1.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방안, 2. 인구 일자리 정책, 3. 기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대상: 완도군민 누구나
 공모기간: 2023년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공모방법: 완도군 홈페이지(www.wandogun.go.kr) 또는 완도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접수
 심사내역: 1. 1차 심사(6월 20일), 2. 2차 심사(6월 27일), 3. 3차 심사(7월 4일)
 심사위원: 1. 1차 심사: 완도군청 기획과장, 2. 2차 심사: 완도군청 기획과장, 3. 3차 심사: 완도군청 기획과장, 완도군청 기획과장, 완도군청 기획과장, 완도군청 기획과장
 심사결과: 1. 1차 심사: 10명, 2. 2차 심사: 5명, 3. 3차 심사: 1명
 시상내역: 1. 1등: 50만 원, 2. 2등: 30만 원, 3. 3등: 15만 원
 기타: 1. 1등: 완도군청 기획과장, 2. 2등: 완도군청 기획과장, 3. 3등: 완도군청 기획과장
 문의처: 완도군청 기획과장 (061-830-2111) 또는 완도군청 기획과장 (061-830-2111)

완도군은 7월 2일까지 '2023년 완도군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완도군의 현안, 역점-미래 사업 등에 국민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소통-참여 행정을 실현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크게 군의 핵심 사업인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방안,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일자리 정책, 미래 발전 정책,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등으로 군 발전에 보탬이 되는 아이디어라면 무엇이든 공모할 수 있다.

접수 방법은 국민 참여 누리집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완도군청 기획예산실 정책기획팀 및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군은 응모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담당

부서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8월 중 우수 제안에 대해 시상할 계획이다.

우수 제안은 등급을 결정해 금상(70만 원), 은상(50만 원), 동상(30만 원), 장려상(15만 원), 노력상(10만 원 상당 기념품)을 시상할 예정이다.

단,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접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이디어 공모전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완도군 기획예산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영율/기자

강진군, '죽록 윤효관과 강진 향촌사회사' 학술대회 개최

"서세 200주년 기념... 윤효관의 삶과 행적, 재조명"

강진군은 7월 7일 오후 1시 30분 강진아트홀에서 강진군과 목포대학교박물관, 해남윤씨대종회에서 주최하고, 민족문화유산연구원, 해남윤씨족사동맹중에서 주관하는 '죽록 윤효관과 조선 후기 강진 향촌사회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강진 출신의 죽록 윤효관(1745 ~ 1823)은 조선시대 강진 출신 가운데 유일하게 문과 갑과에 급제해 지역의 위상을 제고한 역사적인 인물로, 평생 중앙과 지방에서 관리로 봉직하면서 고문서와 한시 등 다양한 자료를 남겼다.

윤효관이 남긴 기록은 조선 후기 관리의 삶을 추적하고 그 궤적의 표본이 되는 자료로 역사연구에 높은 학술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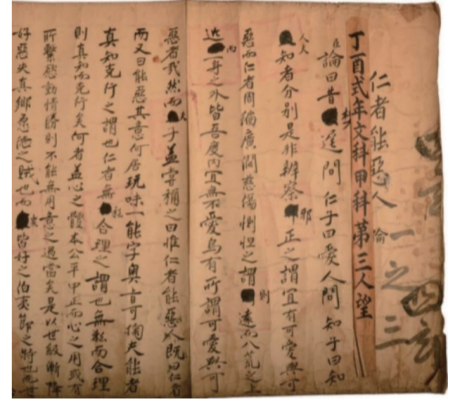
강진 보동마을 해남윤씨 문중은 그동안 목포대박물관에 위탁 관리를 맡겨온 죽록 윤효관 관련 고문서 총 441건을 2013년 6월 11일, 영구 기증한 바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죽록 윤효관 서세

(逝世) 200주년을 기념해, 그의 생애와 문학 사상을 통해, 강진 향촌사회의 위상을 재조명하는 한편, 고문서 등 윤효관이 남긴 자료를 합리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학술대회는 기조 강연과 전문가 2명의 발표와 각 발표에 대한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기조 강연은 '죽록 윤효관과 강진 향촌사회'를 주제로 목포대학교 김경욱 교수가 나서며, 주제 발표는 조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죽록 윤효관 고문서 특징과 가치', 박명희 전남대학교 교수의 '죽록 윤효관 한시의 지향과 문학 사상'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이혜준 공주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흥해뜸 연세대학교 강진 다산실학연구원 용운 연구교수, 손계영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최한선 전남도립대학교 명예교수, 김희태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이 참여한다.



강진원 강진군은 "이번 학술대회는 조선 후기 관료의 일생을 재구성하고 강진의 향촌사회를 복원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강진군은 목포대학교박물관과 해남윤씨대종회, 해남윤씨족사동맹중 등과 긴밀히 협력해, 윤효관 자료가 도 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효관의 문집인 '죽록유고'는 1977년에 중간본과 번역본이 간행됐으며, 2013년, 목포대학교박물관이 '조선의 관리, 죽록 윤효관의 일생'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 바 있다.

주운호/기자

진도군, 공약사항 순조롭게 추진...공약이행률 30%

100개 공약사업 중 농수산 예산 30% 이상 편성 등 30건 완료, 70건 정상추진

진도군이 지난 16일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민들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공약 사업 추진 사항 보고회를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희수 진도군수 주재로 공약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현황 점검, 문제점 분석, 대응 방안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보고회를 통해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를 핵심 기조로 ▲다함께 잘사는 산업 혁신 ▲모두가 행복한 복지 혁신 ▲인재를 키우는 교육 혁신 ▲찾아서 머무는 관광 혁신 ▲군민을 섬기는 행정 혁신 등 5대 목표 아래 100개 공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수산분야 예산 30% 편성 ▲전지역 학생 100원 버스 실현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 운영 등 총 30건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완료 후에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아리랑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등 총 70건의 사업이 정상 추진 중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공약 이행률이 30%로 나타나 민선 8기 김희수 진도군수 공약 사항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행정 절차 이행, 시기 미도래 등으로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 정부와 전라남도, 유관기관 등과 적극

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공약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약은 지역 발전을 바라는 군민들과의 약속이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배진 진도군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화순군, 교통법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 초청 강연



화순군은 교통법을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를 초청해 '교통사고 안 내고, 안 당하기'를 주제로 강의를 마련했다. 강의는 오는 23일 오후 4시 화순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한문철 변호사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SBS '한문철의 블랙박스 몇 대 몇' 진행 등 방송 활동으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사례를 들어 교통사고 분석 및 과실 비율과 예방법을 알려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교통사고 관련 지식을 익히고 군민이 스스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군민 행복 아카데미는 군민에게 양질의 강의와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해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강의를 듣고 싶은 군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총무과 지역공동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경호/기자

신안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농장주 모집

사계절 꽃피는 1004섬 신안군이 스마트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농장주를 모집한다.

신안군은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시설(온실)농업 운영 경험,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영농창업의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는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8년부터 조성된 스마트온실 임대농장은 팔금면에 6,443㎡ 면적에 5명의 청년농업인이 딸기 재배를 하고, 캠타면에는 13,612㎡ 면적에 9명이 커피, 망고를 재배하고 있으며, 지도읍에

청년 창업농을 위한 스마트온실 운영 확대

4,182㎡ 면적에 3명이 망고를 재배하는 전라남도 최고 규모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농장주 모집은 팔금면에 딸기재배를 위한 새로운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5명의 딸기재배 청년농업인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출생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청년농업인 중 독립경영 3년 이하이며, 2023년 6월 23

일까지 신청을 받아 5명의 임차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선정된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3년(최대 6년) 임대형 스마트온실에서 영농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신안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진/기자

구례군의회, 전라남도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선수 격려



구례군의회는 6월 15일 순천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전라남도 시각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한 구례군 선수단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에서는 박승철 사)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구례지회장을 비롯해 한국 선수 4명, 피퍼 선수 1명, 임원진 등 총 8명이 참가했다.

선수단 격려를 위해 대회장을 방문한 김수철 부의장은 "비록 적은 수의 인원이지만 시

각장애인들이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가지고 함께하는 모습이 감동스럽다"며,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건강한 일상과 사회생활, 체육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례군에는 심한장애 등급 900명,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 1,822명 등 총 2,722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지체장애인 1,384명, 청각장애인 483명, 시각장애인 255명이 포함되어 있다.

열다섯 번째 열리는 이번 전라남도 시각장애인 체육대회는 전남 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이 주최하고, 전남 시군 선수단 490명과 임원 210명 등 총 700여 명이 참가했다. 경기종목은 골볼, 실내조정 등 전문체육 5개, 한국, 장기 등 생활체육 5개 종목이며, 대회는 6월 16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다.

김성현/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국방부-접경지역 5개 군, 제7차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과 군(軍)의 상생발전 모색

강원특별자치도와 국방부는 6월 15일 11:00에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제7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는 '19. 12월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국방부장관,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 군수*가 함께 체결한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에 따라 구성된 국장급 협의체로서, '20. 1월 강원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처음 협의회(회의)를 실시한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등 12명이 참석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접경지역은 군부대 이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가 지역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軍)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수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접경지역은 군부대 이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가 지역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軍)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부 박승홍 군사시설기획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선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오랜 여망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축하드린다. 앞으로도 본 협의회를 통해 군과 지역사회가 공동체의식을 갖고 상호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 라고 했으며, 이어진 회의에서는 군사규제 개선·군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 강원특별자치도와 접경지역 5개 군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 했고 특히



이번 회의는 △보호구역 조정 등을 위해 설치된 대체시설의 관리주체 마련 등 총 4개 안건을 중점 논의했으며, 회의 이후 도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국방부는 앞으로도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등원/기자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간담회 참석

철원군과 포천시 포천-철원 고속도로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건설을 위해 전체 40.4km 사업 구간을 26.5km로 단축해 추진해 줄 것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이현중 철원군수는 지난 6월 14일 국회 국방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간담회에 참석하여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기호 의원과 (추천·철원·화천·양구)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의 주재로 마련됐으며, 이현중 철원군수를 비롯해 박기준 철원군의회 의장, 백영현 포천시장, 한명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 허재영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도로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고속도로 연장과 관련해 토의했다.

철원군과 포천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40.4km의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 신속한 사업추진과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전체 구간 중 26.5km만 우선 추진하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조기에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한명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사업 구간을 단축하는 것은 경제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된다"며 "[포천-철원 고속도로]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6월 말에 착수할 것"이라 전했다.

특히 이현중 군수 등 참석자들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건의했으며, 조사 결과에 맞춰 내년이라도 즉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경기도에 고속도로의 실시설계비를 각각 10억원씩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현중 철원군수는 "거대한 국가사업인 고속도로가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필요한 곳에 건설되어야 한다"며 "철원과 포천을 이어주는 43년 국도는 이미 포화상태로 국토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조했다.

최춘식 철원군이장협의회장은 "철원-포천고속도로 연장 사업의 총착지점인 대마리에서 이장을 맡고 있다"며 "사업 구간이 단축되면 대마리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되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허재영 강원특별자치도청 국가도로팀장은 "사전타당성 조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 되고,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다 가정 아래 최대 2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특별자치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기호 의원은 "내년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 예산에 고속도로 일 반설계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착공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세나/기자

태백시, 고원의 아름다운 장미도시 조성

관광휴양도시 경관을 위한 장미식재

태백시는 다른 지역보다 한달가량 늦게 꽃을 피우는 장미를 식재하여 고원의 아름다운 휴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태백형 장미도시 조성사업을 연례적으로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예산 12억여 원을 투입해 태백시 관내 생활환경 및 가로변에 60,000본의 장미를 식재하고, 장미공원 조성에 40,000본, 장미 묘목 나누어주기 20,000본, 장미 지지용 펜스

1,200m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시에는 고원로 등 39개소의 가로변과 황부자머리리 공원 등 3개소 공원 총 44,450m 구간에 48,570본의 장미가 조성되어있다. 올해에는 예산 6천9백만 원을 투입해 추가로 4,340본을 식재했다.

또한, 지난 4월 7일 개최한 2023년 식목일 기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에서는 대상묘목으로 선택된 장미 1,000본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장미 식재를 촉진하고

장미 조성에 대한 홍보 효과를 얻었다.

시는 매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각 동에 장미 지원을 통해 마을과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를 진행하며, 연례적인 식재사업을 추진해 다양한 품종의 특생 있는 장미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등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장미사업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실행해 장미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생활권 장미도시 조성으로 태백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휴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상근/기자



원주시, 2023년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 선정, 최우수상 수상...인센티브 1억 8천만 원



원주시는 지난 13일 강원도청에서 개최한 정부합동평가 제1차 대책보고회 및 우수 시군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인센티브로 1억 8천만 원을 받았다.

시는 전 지표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일 실적점검과

부진지표 집중관리, 지표 담당자 교육, 부서 면담 등을 실시했다.

또한, 시장 주재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표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편의 증진 및 복지향상과 직결된다는 자세로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원주시는 전 지표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아 총점 93.96으로 강원도 내 최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시는 2018년부터 5년 연속 강원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최우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다음 달 정부합동평가 제1차 실적향상 대책보고회에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데 기여한 6개 부서(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에 대해 시상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실적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 및 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내년도 실적향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NH 100년 농협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유통 혁신

『올바른 유통위원회』 출범을 통한 유통 구조 혁신과 함께 수급예측 정보시스템 구축 농협물 경쟁력 강화로 농 축산물 유통 대변화

디지털 혁신

농업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농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지능화 등 디지털농업 강국 실현

조직문화 혁신

조직 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경청'을 실천하고 창의적 생각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충남도청사1회용품 '퇴출'

19일 전면 시행 앞두고 '1회용품 없는 깨끗한 청사' 캠페인 개최

충남도가 도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퇴출시킨다.

도는 16일 도청 지하 1층 로비에서 '1회용품 없는 깨끗한 청사 만들기' 캠페인을 열고, '공공기관 탈 플라스틱 전환 및 범도민 확산 계획' 본격 추진을 안팎에 밝혔다.

공공기관 탈 플라스틱 계획은 음식물 포장·배달 급증 등으로 1회용품 사용 및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현 분위기를 확산해 나아가기 위해 마련했다.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이 계획은 1단계로 도 본청과 도의회,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부터 시작한다.

도는 우선 도청사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1회용 컵 반입·휴대를 금지한다. 사무실 및 회의실에서도 1회용품 사용을 금하고, 페트병 먹는물·음료 사용

도 금지하며, 회의·행사 시 다회용품 사용을 의무화한다.

청사 내 커피전문점 역시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하고, 플라스틱 빨대나 컵은 막대 사용 등도 막는다.

매점에서는 종이컵, 1회용 접시 등 1회용품을 팔 수 없도록 하고, 비닐봉투 사용도 금한다.

도는 이와 함께 '1회용품 제로 챌린지', '1회용품 없는 깨끗한 청사 만들기' 등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감대를 넓히고,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정책 기반도 마련한다.

도는 오는 9월부터 2단계로 전 시군으로 탈 플라스틱을 확대하고, 오는 11월부터는 3단계로 범도민 확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범도민 확산 활동으로는 SNS 등을 통한 1회용품 줄이기 홍보, 초중고 탈 플라스틱 콘텐츠 개발·보급 등 교육 확

대,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탈 플라스틱 협의체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충남연구원을 통해 충남형 탈 플라스틱 전략과제 및 실천 방안을 수립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홍 지사와 김응규 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백남성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송용훈 국민은행 충청지역그룹 대표, 김세용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 대표 등 3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 등은 '1회용품 제로' 카드섹션 퍼포먼스 등을 통해 도청 직원과 방문객 등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 폐합성수지 발생량은 2020년 11만 946톤에서 2021년 12만 7683톤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근/기자



충북도,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 선정 쾌거

전국 6개소 중 괴산군 사리지구 선정... 국비 최대 90억원 확보

충청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공간정비' 2차공모사업을 신청한 괴산군이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며, 국비를 최대 90억원(총사업비 18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21년부터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 공간을 용도별로 구획화하여 축사, 공장, 태양광시설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구역을 활용한 공간조성사업을 지원하여 농촌공간의 재생 및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괴산군은 총사업비 180억원(국비 90억원)을 투입하여 사리면 소재, 중흥리 일원에 유허시설인 둔사, 공장 등을 철거해 스마트팜(실습장, 임대형) 조성, 빈집정비후 귀농인을 위한 임대주택 및 어울림센터, 마을소공원 등 공동이용시설 조성으로 마을 주거

환경 정비 및 농촌인구 유입촉진을 위한 협동조합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업 추진목적 및 내용 등에 부합하도록 적정 사업비 규모를 조정, 보완하여 최종 사업비를 확정하고 2023년 하반기부터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도 이수현 농업정책과장은 "충북이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우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전국 표준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아산시,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선도연구센터' 선정...국·도비 101억5천만원 확보

아시아 최고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연구개발 콤플렉스 구축 기대

아산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3년도 선도연구센터(MRC)사업' 공모에 기초과학 분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주제로 최종 선정돼 국·도비 10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창의성과 탁월성을 보유한 우수 연구집단을 발굴·육성해 국가 기초연구 역량을 향상하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며, 마이크로바이옴은 난치성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미 세계 주요국에

서 관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분야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2029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170억5000만원(국비 94억5천, 도비 7억, 시비 7억, 기타 7억, 민자 55억)이 투입돼 순천향대 프로바이오틱스·마이크로바이옴 융합연구센터(PMC) 주관으로 고위험 감염 대응 및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대사질환 치료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현재 시는 지난해 선정된 298억원 규모의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진단 기술개발 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감소연구개발특구 내에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센터'를 구축 중이며, 앞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54억원 규모의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공모사업이 선정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기초연구부터 치료 기술개발, 임상, 상용화까지 ONE-STOP 지원이 가능한 국제 최고 수준의 인프라가 아산에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번 공모사업과

현재 감소연구개발특구 내에 구축 중인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센터' 건립을 바탕으로 아산이 인류의 생존과 건강이라는 미래 핵심 분야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학교 프로바이오틱스·마이크로바이옴 융합연구센터는 바이오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집중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거점센터로 지난 2018년도에 구축됐다.

김원호/기자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메타버스 독립역사 교육 운영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테마활동 선정 '모두의 엠지' 프로그램 참여 기관·단체 모집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은 6월 호국보훈의달 맞아 올해 국가보훈처 보훈테마활동에 선정됐던 '모두의 엠지(메타버스 존 - Metaverse Zone)' 메타버스를 구현했다.

모두의 엠지(MZ)는 다문화, 재외동포 등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메타버스로 제작된 독립역사 관련 교육자료이다.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2022년에 제작한 메타로독립보고서를 업그레이드했다.

수련관은 지난 3월부터 '모두의 엠지(MZ)'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해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번역작업과 더불어 영상 제작, 기존에 제작된 메타버스의 수정 등을 거쳤다.

만들어진 메타버스에는 독립운동의

역사, 충남의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후손 인터뷰 등의 교육 영상이 삽입될 예정이다. 독립운동가 후손으로는 윤봉길 의사의 친손녀인 윤주경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보훈테마활동 '모두의 엠지(MZ-메타버스 존 Metaverse Zone)'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 관련 문의는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으로 하면 된다.

윤여송 관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청소년 활동에 있어서 많은 영역에서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메타버스 등 4차 산업기술이 청소년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아동이 행복한, 모두가 행복한 더좋은 아동친화도시 청주

청주시는 16일 임시청사 회의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시의원, 교육청·경찰서 관계자,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신병대 부시장의 위촉장 수여, 이자우 아동보육과장의 2022년 아동친화도시 주요성과 및 2023년 추진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2년 간 아동친화적인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과제 추진

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관련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안 및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가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 위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아동이 삶의 주체로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청주시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주시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시정 전반에 도입해 아동친화적인 정책 및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9년에 제1기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제3기에 이르고 있다.

고정화/기자

제3기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신병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교육청, 경찰서 등 아동친화도시 유관기관,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청주시는 2021년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적인 지자체를 말한다.

고정화/기자

옥천군, 일본 홋카이도 국외연수단 시책발굴 토론회 개최

4박 5일 일정 일본 선진지 국외연수 결과 공유 및 발굴 시책 발표



충북 옥천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던 일본 홋카이도(히가시카와정, 오타루시) 방문 국외연수에서 발굴된 사업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황규철 옥천군수의 주

재로 국외연수에 참여했던 16명의 공무원이 참석하여 연수 소감과 발굴 시책에 대한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옥천군 연수단이 방문한 일본 홋카이도 히가시카와정은 인구감소의 위기 속에서도 25년째 인구가 늘고 있는

곳으로, 마을만들기 사업과 이주정책, 육아 교육프로그램, 해외교류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시책을 추진해 일본 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선정된 곳이다.

특히 두 번째 방문 기관이었던 오타루

고정화/기자

시는 영화 '러브레터'의 촬영지로 유명한 곳으로, 구름지라는 지형적 어려움과 다양한 근대 문화재의 개발 제한 속에서 도시재생 사업과 다양한 먹거리 개발로 연간 265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도시로 탈바꿈해 일본 내 우수사례로 평가받는 곳이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연수로 방문한 두 도시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발굴된 관광, 농업, 교육, 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23개 사업이 발표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칭)옥천 사진공모전 ▲옥천형 육아돌봄 품앗이 ▲장계관광지 미디어아트 테마 산책로 개발 ▲지용 한국어 학당 운영 ▲야간경관명소 조성사업 ▲'옥천, 맛있는지도' 제작사업 등으로 11건의 신규사업과 기존 추진사업의 확대·개선 방안 12건이 발굴·제안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황규철 군수는 "비록 4박 5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오늘 발표된 사업들이 옥천군 인구 증가와 지역발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정화/기자

'2023 충주 다이브(DIVE) 페스티벌' 성료!!

축제장 다녀간 20만여 명 충주에 빠지다

충주시 관광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2023 다이브 페스티벌이 18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충주시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열린 '충주 다이브(DIVE) 페스티벌'에 추산 20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충주 다이브(DIVE) 페스티벌'은 첫날 방문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거리퍼레이드와 연계한 축하공연, 충주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주제공연 등으로 축제의 막을 올렸다.

이어 둘째, 셋째 날에 펼쳐진 락&힙합 페스티벌은 무더위를 잊고 시원한 추억에 빠지는 시간을 제공하며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특히, 올해 축제는 '충주로 다이브(DIVE)! 감성에 빠지다'라는 부제로 물

감정이 높은 프로그램과 더불어 무드 조명으로 이루어진 아기자기한 목재부스와 캐릭터 유등 및 열기구 전시로 전 연령층이 함께 할 수 있는 감성 포인트를 강화했다.

감성 포인트존은 축제장의 소중한 추억을 담아 갈 수 있는 포토존으로도 활용돼 가족 단위 방문객을 비롯한 전 세대의 높은 관심과 인기를 얻었다.

또한, 바비큐존과 푸

김원호/기자



경북농업의 미래인력 '청년 후계농' 한자리

경주시 선후배 청년 후계농업인과 소통한마당 행사 가져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경북 농업, 세계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 다할 것"

경북도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경주에서 청년농업인, 한국후계농업인 5천명 양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의 일환으로 선후배 후계농업인과 정보공유,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가 2026년까지 청년농업인 5천명 양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의 일환으로 선후배 후계농업인과 정보공유,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자리다.

1일차에는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에 대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정부 정책 설명과 후계농 육성자금 대출제도에 대해 농협은행 경북본부의 설명을 진행했다.

또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을 역임한 박상희 박사, 농업플러스 이우락 대표와 빅토리팜 손다은 대표는 농촌생활 초기부터 현재까지 힘들었던 과정을 설명하며 참석한 청년농업인들의 공감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2일차에는 선배 청년농업인들의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다. 발표자로 나선 농업플러스 이우락 대표와 빅토리팜 손다은 대표는 농촌생활 초기부터 현재까지 힘들었던 과정을 설명하며 참석한 청년농업인들의 공감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업·농촌의 미래인 청년·후계농업인력이 다양하게 소통 하고 상호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자주

만들어 경북 농업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행정안전부, 인공지능(AI) 활용한 최초의 정부전용 행정지원 서비스 개발된다

행안부, 네이버클라우드·KT·LG CNS·SKT 등 국내 인공지능(AI) 플랫폼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정부의 행정 업무에 인간의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인공지능(AI) 행정지원 서비스'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행정지원 서비스 개발을 위해 6월 16일(금) 네이버클라우드, KT, LG CNS, SKT 등 국내 인공지능(AI) 플랫폼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행정안전부와 기업은 인공지능(AI) 행정지원 서비스 개발, 공공데이터 개방, 기술 교류, 정책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협약을 체결한 기업과 '인공지능 행정지원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이번 서비스 개발은 4월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 과제로 발표한 '정부 전용 초거대 인공지능(AI) Assistant 구현'의 일환이다.

행정안전부가 행정문서를 인공지능(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수집·가공하여 민간기업에 제공하면, 민간기업은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행정지원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가 개발되어 보고서 작성 등 공무원 행정 업무로 개선되면, 행정·복지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정부의 생산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문서 데이터 개방을 통해 국

내 인공지능(AI)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한다.

정부가 생산하는 공문서는 공공성·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양질의 정제된 문서로서 공문서가 데이터 형태로 개방되어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면 활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인공지능(AI) 행정지원 서비스 시범 개발을 통해 정부 내부 업무에 인공지능(AI) 적용 가능성과 적합한 분야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업무관리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으로 개편할 계획이 있다.

더 나아가 재난·재해 대응, 복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 서비스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 외에도 자체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전문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민·관 협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식 차관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데이터와 기업의 초거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라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정부 혁신을 선도하여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청송군, 청년 주거 안정성 높인다!

청송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 건립사업 건축기획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윤경희 청송군수, "청년층 주거 안정성 확보 동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청송군은 지난 16일,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청송 공공임대주택 청년 빌리지 건립사업 건축기획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군은 청년층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조성하고 직장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송 공공임대주택 청년 빌리지 건립사업'을 지난 5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청송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 건립사업'은 청송읍 월마리 204-1번지 일

원에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총 51세대 원룸형 공간을 조성하고, 필로티 주차장, 옥상 휴게공간 쉼터 및 외부조경시설, 무인택배함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촉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전시 로컬 스타트업 피칭대회 개최

창의적 청년 소상공인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연계 지원

대전시는 15일 지역 내 잠재력 있는 예비창업자 및 혁신 소상공인 발굴과 성장단계별 육성 지원을 위한 로컬 스타트업 피칭대회를 개최했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시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하면서 대전시내 Art&Science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등 총 36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전문위원 서류심사를 통과한 12개 팀이 최종 본선 피칭대회에 참여했다.

대회 진행은 각 참여자가 자신들의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 및 아이템을 자유로운 방법으로 발표 후 개별적 질의에 응답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심사위원들은 발표 능력, 제품의 차별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부여한다.

이번 대회 수상팀은 대전시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함께 조성 예정인 소상공인 혁신허브 입주 및 관련 지원 프로그램 등에서 우선적 배정이 이뤄지게 된다.

대전시내 Art&Science, 대전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코트라 등과 연계한 판로개척 지원 및 소상공인 성장단계에 맞춘 분야별 민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사업 역량 고도화도 지원될 예정이다.

최근 기업가형 청년 소상공인들이 로컬 스타트업으로 새롭게 정의되고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주도하여 주요 골목마다 생겨나고 있는 이국적 맛집, 다채로운 카페, 커뮤니티 공간 등이 지역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 가고 있는 가운데 골목상권 활성화와 위한 로컬 스타트업 배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우리 동네 기업가형 소상공인 발굴과 육성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청년 일자리와 시민들이 행복한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8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 등 5건의 규제특례 지정

(1)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 (나이스디앤알) : 적극해석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주차장 진입가능 여부 안내"

(내용) 차량등록번호를 활용해 차량의 제한정보를 확인한 후, 주차장 진입가능 여부와 주차비 감면혜택을 알려주는 서비스

(규제)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차량등록번호 및 차량 제한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경우인지 불명확 (기대효과) 주차장 진입사고 예방, 주차비 절감

(2) AI 활용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에이아이포트) : 실증특례

"수의사가 AI를 활용해 반려동물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내용) AI 기반 소프트웨어(App)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

(규제) 수의사법상 수의사의 직접 진료에 의한 진단서처방전 등의 발급만 가능

(기대효과) 반려동물 및 반려인의 편의성 증대, 의료서비스 비용 부담 경감, 동물용 의료기기 개발 활성화 기대

(3) 공항버스 LED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서비스 (티엠모빌리티 컨소시엄) : 실증특례

"디지털 사이니지로 차량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새로운 광고채널 확대"

(내용) 공항버스 측면에 경량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하여 상업광고, 공익정보, 재난정보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송출하는 서비스

(규제)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설치면적, 전기·발광 방식이 제한되고, 자동차관리법상 등화장치 제한 및 자동차 너비, 차체 외형 돌출, 차량 총 중량중가 튜닝 제한

(기대효과) 지역 소상공인 광고 채널 확대, 버스 운수사 경영난 완화 및 교통요금 인상요인 억제,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6일 제2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기존 규제특례 지정과제 10건에 대해 부가된 조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차장에 차량이 진입하기 전 차량의 크기와 유종을 파악하여 주차공간의 유무를 알려주고 경차나 전기차인 경우 할인정보를 제공하는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에 대한 적극해석을 통해 즉시 시정출시가 가능하도록 처리했다. 그리고,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인 인공지능 기반 반려동물 상태진단 소프트웨어의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안과질환을 진료하는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특히 이번 안전은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실증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첫 번째 사례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 그 외 규제특례가 지정된 안전 목록은 아래와 같다.

아울러, 기존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실증기업들의 실증과정에서 야기된 애로사항을 일괄 조사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 결과, 10개 과제의 실증과정에서 부가된 조건을 완화하여 추후 실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지난 제12차 심의위원회

(‘20.9월)에서 실증특례 지정된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신정인 와이퍼워)'는 당초 대전지역 전기버스 7대의 제한조건이 있었으나 파주·구리·남양주 지역에서 전기화물차 15대까지 실증할 수 있도록 제한조건을 완화했다. 또한 지난 제16차 심의위원회(‘21.4월)에서 실증특례 지정된 '아파트 단지내 주민 간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신정인 타운즈)'에 대한 실증지역을 하남·구리·남양주에서 경기도내 실증에 동의한 지자체로 확대했다.

한편 이 날은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제3기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촉식도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하여 산업부 등 정부위원 7명과 정보통신 융합분야 민간 전문가 13명을 더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연임 1회)이다. 이번 제3기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기존 2기 민간위원 임기 종료에 따라 9명이 새롭게 위촉됐으며, 학계·산업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위촉된 3기 심의위원회가 디지털 혁신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최광수/기자



"다시 일하는 기쁨을" 남원시, 2023년 새일 미니채용박람회 개최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6월 16일 오후 1시~3시까지 남원시평생학습관 1층에서 여성구직자 및 직업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미니채용박람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시 일하는 기쁨을"이라는 슬로건으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현장 면접을 위한 기업 채용 부

스, 구직상담 및 이력서 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을 위한 취업 지원 부스, 남원새일센터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홍보 지원 부스, 시식회 및 노무 상담 등의 부대행사 부스로 구성된다.

특히, 구직자의 실질적인 취업을 위해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력하여 살림노인복

지센터 등 4개 구인업체를 발굴했으며, 현장에서 구직자와 소통하며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사담당자가 참여하여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아울러 부대 행사 부스는 올해 직업교육훈련 '수도도시락' 전문가과정의 훈련생에게 직무능력 향상 및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식 회를 운영하여 훈련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시식회 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무사를 섭외하

여 매년 노무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여성의 취업 과정에서 겪는 노무 문제와 인사 후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의 갈등을 해소해 줄 예정이다.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은 "앞으로도 우리 시 여성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임종식 경북교육감, 상주에서 소통·공감의 타운홀 미팅 개최

K-EDU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교육 표준으로

경북교육청은 지난 15일(목),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서 김천, 구미, 상주, 문경지역 학부모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EDU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교육 표준으로'를 주제로 상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 관계자 및 학부모,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타운홀 미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들을 경북 교육 정책에 적용함으로써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60분간 진행된 타운홀 미팅에서 임종식 교육감은 인성, 나라사랑, 독도, 학령인구 감소 대책 등 미래교육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정책을 설명하고, 학부모 및 미래지구 이상 및 지역주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타운홀 미팅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평소 멀게만 느껴졌던 교육감에게 사교육비 절감 방안, 수도권 지역과의 교육격차 문제, 돌봄운영 등 평소 궁금한 정책과 학교 문제를 직접 질의하고 그 자리에서 해결 방안을 토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아이들이 꿈을 이루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2023 타운홀 미팅은 지난 5월 10일 포항을 시작으로 6월 15일 상주, 6월 28일 칠곡, 9월 6일 안동 타운홀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하운수 교육감 서울대 입학설명회 격려

하운수 부산시교육감, "상세한 안내와 질의응답으로 대학입시준비에 도움 받길"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오후 7시, 부산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학생,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4학년도 대입 대비 서울대학교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입학설명회에서 하운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설명회는 서울대의 입학전형에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상세한 안내와 질의응답을 통해 대학 입시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종진/기자



경북교육청, 2023 경북 학생 경제퀴즈 한마당 성료!

중학생들이 실생활 경제를 배우는 축제의 장 열어



경북교육청은 지난 14일(수),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중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2023 경북 학생 경제퀴즈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퀴즈 한마당은 경북교육청이 주최하고 뉴스1 대구·경북이 주관한 행사로 경북의 서남부권 8개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물경제에 관한 골든벨 형식의 경제퀴즈 대회와 명사 초청 강연 및 축하공연으로 성황리에 치러졌다.

학생 경제퀴즈 한마당의 문제는 경북교육청에서 개발해 보급한 중학교 경제교육 교수학습자료를 토대로 준비했다.

경북교육청이 개발한 경제교육 교수학습자료는 이론 중심의 경제교육을 넘어서 실생활과 연계된 실물경제 위주의 주제로 10차시 과정을 개발해 중학교 자유학기 및 중3 사회교과에 활용되고 있으며, 그동안 경제교육 교수학습자료를 신청해 수업과 동아리 등에서 배운 학생들이 이번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은상 수상자 2명에게는 장학금 10만 원, 금상 수상자 1명에게는 장학금 20만 원, 최후의 1인 대상 수상자에게는 경북교육감상과 장학금 30만 원이 수여된다.

이번 학생 경제 퀴즈 한마당에서는 구미신평중학교 3학년 박미소 학생이 골든벨을 울리고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경제버스, 학생 경제동아리, 찾아가는 경제교실 및 지역 맞춤형 경제교육 등 체험·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점차 경제 주체가 될 학생들이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으로 쌓은 실물 경제 소양을 경제퀴즈 한마당에서 뽐내며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기뻐한다"며 "앞으로 소비와 생산의 주체가 될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남교육청-월드비전, '희망지원 네트워크' 협약

월드비전 경남울산사업본부, 위기 아동 지원금 약 9억 4,000만 원 전달

경상남도교육청은 16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월드비전 경남울산사업본부와 교육복지안전망 '꿈꾸는 아이, 희망지원 네트워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월드비전의 '꿈꾸는 아이들' 사업 지원금 약 9억 4,000만 원을 경남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육국장, 유상조 교육복지과장, 월드비전 경남울산사업본부 전광석 본부장, 후원이 사회 신기성 회장, 안기학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남 지역 아이들을 위한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맞춤형 통합 프로그램과 자원, 보호 체계를 마련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박중훈 교육감은 "단 한 명의 학생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월드비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광석 월드비전 경남울산사업본부장은 "모든 어린이의 풍성한 삶을 위한 월드비전의 꿈꾸는 아이들 사업과 교육복지안전망 협력 사업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박중훈 교육감, 강신영 미래

장재현/기자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요?'

2023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학부모/교원 연수

김현오 교육장, "올바른 미디어 사용 교육과 과의존 예방을 위해 학부모·교원 최선 노력" 당부

문경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목), 문경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및 교원 60명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연수는 학부모는 오전에 교원은 오후로 2차례에 나눠 진행됐다.

이번 연수는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학부모와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심각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인 이미경 강사는 '인터넷, 게임, 스마트

폰!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주제로 미디어 중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과의존에 대한 예방을 위해 학부모와 교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현오 교육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이 증가하고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미디어 사용 교육과 과의존예방을 위해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적절한 미디어 사용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전북교육청, 전북 9개 공공기관 감사업무·청렴향상 머리맞대

15일, 16일 전북지역 자체감사기구 협의회 워크숍... 청렴정책 발전 등 논의

전라북도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9개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장들이 감사업무 및 청렴분야 향상 등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워크숍을 진행했다.

전북교육청은 15일, 16일 전북교육청 교직원수련원에서 전북지역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장들이 한데 모여 '전북지역 자체감사기구 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자체감사기구 협의회는 지난 2014년 9월 16일 발족했으며 현재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청,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전북지역 9개 공공기관 감사기구로 구성돼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AI시대 감사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 '기관별 청

이남춘/기자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 2023 교내 채용박람회 개최

당당하게 내 일을 잡(JOB)자! 행사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는 지난 16일, 다목적 강당(살롱라에서 "2023 교내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취업에 관련된 각종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경영사무, 미용, 보건간호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20여개 업체가 참여하여 부스별 상담, 1:1현장 면접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경영사무 분야의 6개 기업체의

인사담당자가 참여해 금융, 제조, 회계세무 분야 직군에서 채용이 이루어졌다. 미용업체 6개의 대형프랜차이즈 기업에서는 미용 서비스 직군에 중시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였으며 의료업체 4개의 대형병원에서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신규 간호조무사를 선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유관 기관에서는 진로, 직업 관련 무료 컨설팅과 영주시 인접 시군 일자리 매칭을 진행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였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의병장 신돌석장군 순국 115주기 송모제향 봉행

평민 의병장 태백산 호랑이의 송고한 희생정신과 나라 사랑 뜻 기려 김광열 군수, "송모제향, 호국문화 가치 재조명, 의로운 뜻 후손 전달 계기 되길"

영덕군과 신돌석 장군 송모위원회가 주최·주관한 '장산 신돌석 장군 순국 115주기 송모제향'이 지난 13일 신돌석 장군 유적지에서 봉행됐다. 이번 송모제향은 장군의 후손들과 송모위원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헌관으로 김광열 영덕군수, 아헌관에 이상엽 신돌석함 함장, 중헌관에 서재찬 영덕경찰서장의 제관 아래 엄숙하고 경건하게 거행됐다.



의식행사는 제향행사에 이어 송모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신돌석 장군과 영릉의병진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추모 공연과 추모 시 낭송 등으로 이어졌다. 송모위원회 권효준 위원장은 "신돌석 장군의 송모제향은 장군의 송고한 뜻과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나라 사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장군의 삶에 대한 오늘날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송모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일생을 바치신 장군님의 송고한 호국정신과 희생정신은 대한민국이 고난을 이겨내고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었던 밑바탕으로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가치"라며, "송모제향을 통해 영덕군 호국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의로운 뜻을 후손들

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신돌석 장군은 축산면 도곡리에서 평민의 아들로 태어나 동해안 일대를 누비며 항일운동에 맹위를 떨쳐 을 기리고 송고한 호국정신과 웅망한 기상을 선양하기 위해 매년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송모제향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영덕군은 대한민국 해군의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리기도 한 항일의병장으로, 1963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됐다. 영덕군과 송모위원회는 항일 구국 활동을 위해 청춘을 바친 신돌석 장군 1800t급 잠수함 신돌석함 부대와 지난 2017년 자매결연 협약을 맺어 신돌석 장군의 호국정신과 애국심을 함께 기리는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장문화/기자

울진군, 제안 공모 채택자 창업지원 사업 시행

지역기반 창업지원 최대 4300만원 지원 손병복 군수, "실질적 창업지원으로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

울진군은 지난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23년 울진군 제안 공모 채택자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3년 울진군 제안 공모 채택자 창업지원 사업'은 예비 창업가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울진의 지역자원이나 문화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울진군에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중에 지역기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가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미만 초기 창업가이며, 지역 가치, 로컬 푸드, 지역 기반 제조, 지역 특화 관광, 거점 브랜드, 디지털 문화 체험, 자연 친화 활동 등 7

개 분야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창업가당 최대 4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사업계획서 및 발표평가를 통해 2023년 7월 21일까지 지원 대상자 2명을 최종 선정하여 지역 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멘토링, 성장단계와 비즈니스 모델에 맞춘 컨설팅과 단계별 자금지원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아이디어는 있으나 창업 기반이 약한 청년들에 대한 실질적 창업지원으로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영양 양수발전소 성공적 유치를 위해' 영양군의 체육인, 한마음으로 결집하다!

오도창 영양군수, "군민의 총의를 결집, 양수발전소 반드시 유치"

영양군은 지난 16일(금), 영양군청 전정 잔디광장에서 영양군체육회 임직원과 종목별 경기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한가운데 영양군의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영양군체육회의 주최하에 체육인들이 양수발전소 유치를 염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이며 오도창 영양군수를 비롯하여 지역의 체육인들과 사회단체장 등 4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됐다.

영양군체육회가 주도한 이날 행사는 양수발전 유치염원 챌린지, 일월면 풍물패의 풍물공연, 양수발전유치 호소문과 결의문 낭독의 순서로 진행됐다.

양수발전소가 유치될 경우 영양군에는 국비 2조원의 양수발전 건설사업비가 투자되어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지역발전사업비 500억원과 매년 14억원의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복합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가 있어 인소수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영양군민들은 양수발전소 유치를 강력하게 염원하고 있다.

영양군체육회 박재서 회장은 "영양군 체육인들이 단결하여 반드시 영양군에 양수발전소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의 체육인의 뜨거운 열정으로 개최된 '양수발전 유치결의대회'에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군민의 총의를 결집하여 반드시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의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노력은 허를 내두를 만큼 열정적이다. 영양군내 각식당, 업소, 등 모든 곳에 양수발전소 유치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스티커들이 차고 넘쳐, 영양군의 양수발전소 유치의 꿈이 점점 영글어 가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2023년 울진군 제안공모 채택자 창업지원 사업

지역자원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예비)창업가를 지원합니다.

모의
군청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
(☎ 789-6470-1)

모집기간 2023. 6. 15. ~ 7. 5.

지원대상
울진군에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중 지역기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가 또는 3년 미만 초기 창업가

지원분야
7개 분야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지원 (사업화 자금 최대 4300만원)
① 지역가치 ② 로컬푸드 ③ 지역기반 제조
④ 지역특화관광 ⑤ 거점브랜드
⑥ 디지털문화체험 ⑦ 자연친화활동

신청방법
군청 홈페이지(www.ujin.go.kr), 이메일(slayerillu@korea.kr)

산림청, 목재 성분에서 차세대 기능성 소재를 찾다

국립산림과학원, 신기능성 소재 개발 위한 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6일, 임산자원의실에서 목재 성분 기반 의약품 및 기능성 소재 개발방안을 모색하고자 '차세대 기능성 소재 개발'을 주제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남기달 교수를 초청하여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약개발을 위해 천연물에서 확인된 유효성분의 기능성을 최적화·극대화하고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성분 전환 기술 연구가 각광 받고 있다.

세미나에서 남교수는 신약개발 분야의 최신 동향을 합성 신약과 천연물 신약의 관점에서 소개하면서,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다양한 소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임산소재연

구과 박미진 연구관은 목재 성분을 기반으로 한 국립산림과학원의 기능성 소재 연구 추진 결과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목재 성분을 기반으로 분자모델링 기술 등을 활용한 신약이나 기능성 소재의 개발 가능성과 방향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박미진 박사는 "목재 성분으로부터 신기능성 소재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목재성분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능성 소재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Everywhere Green Life, H₂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Feel·必

ESG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새로운 충북을 상징하는 새 얼굴을 뽑아주세요! 충청북도 새 얼굴(심벌마크, CI) 대국민 선호도 조사 실시

6월 16일부터 6월 25까지 10일간 조사

충청북도는 6월 16일부터 10일간 충북의 새 얼굴(심벌마크, CI)를 선정하기 위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충북도는 지난 3월 23일 디자인 전문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충북의 정체성과 비전, 매력을 담은 다양한 심벌마크를 개발했고, 수차례의 브랜드위원회 회의를 거친 결과 최종 4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충청북도의 새 얼굴은 10일간의 대국민 선호도 조사 이후 브랜드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7월 3일 브랜드 선포식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선호도 조사는 모바일·인터넷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 누리집(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충북 브랜드 소통플랫폼'에 접속하여 가장 마음에 드

는 디자인을 선택하면 된다. 특히, 투표 독려를 위해 투표 후 충청북도 SNS 매체(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인증한 240명을 추천하여 모바일 기프트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충청북도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해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브랜드참여단 아이디어대회, 대국민 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충청북도 브랜드 위원들의 심층자문 및 심사과정을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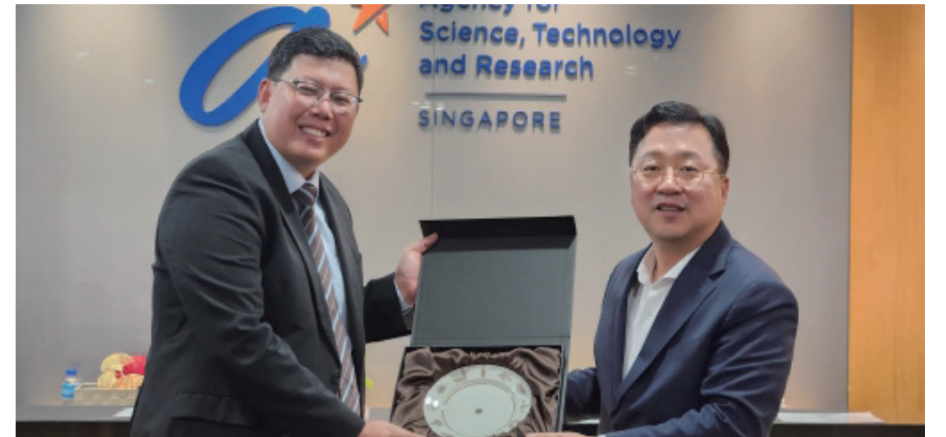
충북도 관계자는 "충청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대표상징을 찾기 위한 여정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대국민 선호도 조사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바이오강국 싱가포르 성공비결 대전시 접목방안 모색

바이오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원촌동 특구개발사업 개발 기대



대전싱가포르 해외 출장 중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16일 싱가포르 바이오기업, 지원기관, 대학 등을 방문하고 싱가포르의 성공비결을 대전시에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 시장은 바이오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특구 개발사업을 위한 벤처마케팅을 목적으로, 싱가포르 머크와 과학기술 정부기관, 국립대학 바이오연구 단시설을 찾았다.

이 시장을 비롯한 대전시 대표단은 싱가포르 머크 앰랩협업센터, 국립싱가포르대학, AStar(싱가포르 과학기술연구청), 바이오폴리스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바이오 강국 싱가포르의 지원시스템과 관련 기관들의 협력체계 등을 살폈다. 싱가포르를 2003년 정부 주도하에 바이오 허브 구축을 위한 원노스(One North)지역에 바이오폴리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외자 유치를 위한 과감한 면세혜택과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머크, 론자,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기업의 연구소 유치에 성공하며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부상했다.

또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무사를 섭외하여 대면 노무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여성의 취업 과정에서 겪는 노무 문제와 인사 후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의 갈등을 해소해 줄 예정이다.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은 "앞으로도 우리 시 여성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양 바이오프로세스 시설 건립에 대한 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생산시설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이 시장은 국립싱가포르대학을 찾아 합성생물학 연구의 최신동향과 산학협력 전략 및 투자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고, 바이오폴리스를 관할하는 A*Star(과학기술연구청) 등을 방문했다.

바이오폴리스는 게놈 연구소, 바이오 엔지니어링 연구소, 바이오 인포메틱스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이 집적된 곳이다.

연구시설 외에도 산학 간, 기업 간의 공동연구 개발과 협력을 위한 시설(오디토리움, 공동회의실)과 연구인력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상업시설, 아파트와 Pocket Housing) 등을 제공하는 등 일종의 뉴타운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

이 시장은 "대전도 바이오폴리스를 벤치마킹한 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를 구성하고 있다. 카이스트와 머크 공동연구센터, 난치성질환 및 암 치료 전문연구 실증병원 등과 함께 유망한 벤처기업과 글로벌 바이오기업을 유치할 생각"이라고 밝히며 A*Star(과학기술연구청)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국외 출장을 통해 대전의 노른자형인 원촌동 특성화사업의 개발에 대한 밑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머크사와 같은 글로벌 바이오기업과 관련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일류경제도시로 세계속에서 우뚝 서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다시 일하는 기쁨을” 남원시, 2023년 새일 미니채용박람회 개최

기업체와 구직자 간 만남의 장 마련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부스 운영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6월 16일 오후 1시~3시까지 남원시평생학습관 1층에서 여성 구직자 및 직업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미니채용박람회를 진행한다

“다시 일하는 기쁨을”이라는 슬로건으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현장 면접을 위한 기업 채용 부스, 구직상담 및 이력서 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을 위한 취업 지원 부스, 남원새일센터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홍보 지원 부스, 시식회 및 노무 상담 등의 부대 행사 부스로 구성된다.

특히, 구직자의 실질적인 취업을 위해 남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력하여 살림노인복지센터 등 4개 구인 업체를 발굴했으며, 현장에서 구직자와 소통하며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사담당자가 참여하여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아울러 부대 행사 부스는 올해 직업교육훈련 '수제도시락 전문가과정의 훈련생에게 직무능력 향상 및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 사식 코너를 운영하여 훈련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시식회 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무사를 섭외하여 대면 노무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여성의 취업 과정에서 겪는 노무 문제와 인사 후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의 갈등을 해소해 줄 예정이다.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은 “앞으로도 우리 시 여성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오세훈 시장, 북서울꿈의숲 오현적환장 지하화 사업 의지 표명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강북구 중심 시정질문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이 서울시의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지역구인 강북구를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오래지 않은 강북구의 역사를 언급하며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의 동북권 발전구상에서도,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동북권 발전방향에서도 그 내용은 도봉구·노원구에 집중돼 있어 강북구는 홀대받고 있다는 것이 박수빈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담긴 미아 지역중심 사업의 구체적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시장은 미아역 지구 단위 계획수립 등을 통해 강북구 지역발전 실현 기반을 마

련 중이며 실행방안의 하나로 강북지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 외 상업·업무·생활SOC 등 다양한 지역 필요 시설을 확충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지지부진한 오현적환장 지하화 문제도 빼놓지 않았다.

자치구 의사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북서울꿈의숲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려면 자치구와 협력해 부지 위 종합스포츠타센터 건립 등을 포함한 오현적환장 지하화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시작한

만큼 '정원도시 서울'의 관점에서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시장은 필요한 사항을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용진 국회의원, 이순희 구청장, 시·구 의원들과 합심해 강북구의 변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발언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최광수/기자



영화 '드림', 오늘(14일)부터 극장 동시 IPTV & VOD 서비스 오픈!

6월 16일부터 6월 25까지 10일간 조사

개념 없는 전직 축구선수 흥대(박서준)와 열정 없는 PD 소민(아이유)이 집 없는 오합지졸 국내 선수들과 함께 불가능한 꿈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드림'이 6월 14일(수) 바로 오늘부터 IPTV와 디지털케이블 TV,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해 극장 동시 VOD 서비스를 시작한다.

'드림'은 현실 공감대를 자극하는 말맛 대사와 오합지졸 홀리스 축구단의 국내급 케미스트리, 멈추지 않는 도전을 통한 훈훈한 감동까지 다채로운 재미로 전 세대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에 관객들은 "각자의 사연들이 모여 감동을 만들어 낸 실화라 더 감동적이었다.",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잡았다.", "이병헌 감독 특유의 말맛이 살아있고 티키타카로 중간중간 웃음 포인트를 줘서 좋았다." 등 '드림'이 선사하는 유쾌한 웃음과 진한 감동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처럼 남녀노소 관객들의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는 '드림'은 오늘부터 IPTV(KT Genie TV, SK Btv, LG U+ TV), 홈초이스, KT SkyLife, TVING, 쿠팡플레이, WAVE, 네이버 시리즈온, Apple TV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드림'은 이번 IPTV 및 VOD 서비스를 통해 아직 영화를 관람하지 못한 관객뿐만 아니라 N차 관람을 원하는 관객들에게도 '드림'만의 뜨거운 감동과 실 새 없이 터지는 웃음을 선사하며 안방극장을 완벽하게 장악할 것이다.

이병헌 감독과 박서준, 아이유를 비롯해 캐릭터와 완벽한 싱크로율의 국내급 배우들의 조합이 더해진 영화 '드림'은 전국 극장에서 상영 중이며, 6/14(수)부터 극장 동시 VOD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영화 '귀공자' 김선호-강태주-김강우-고아라, 씨네21 커버스토리 화보 공개! 강력한 케미스트리로 시선집중!



숨 가쁜 추격전과 예측불허 스토리로 개봉 전부터 언론 매체와 관객들의 호평 세례를 받고 있는 영화 '귀공자'가 김선호, 강태주, 김강우, 고아라가 함께한 씨네21 커버스토리 화보를 공개했다.

'귀공자'는 필리핀 불법 경기장을 전전하는 복싱 선수 '마르코' 앞에 정체불

명의 남자 '귀공자'를 비롯한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닌 세력들이 나타나 광기의 추격을 펼치는 이야기.

이번에 공개된 화보는 '귀공자'에서 단 한 번도 타겟을 놓친 적 없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귀공자' 역할을 맡은 김선호와 하루아침에 모두의 타겟이 된 복싱

선수 '마르코' 역할을 맡은 강태주, '마르코'를 집요하게 쫓는 재벌 2세 '한이사' 역의 김강우, '마르코'와 우연한 만남이 계속되는 미스터리한 인물 '윤주' 역의 고아라까지. 다채로운 매력으로 4인 4색 연기 시너지를 발산한 네 사람의 완벽한 케미스트리를 담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킨다.

블랙 앤 화이트 슈트 차림의 스타일링으로 극과 극 상반된 분위기를 완성한 이들은 화보를 통해 선과 악의 경계를 허무는 각 캐릭터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여기에 네 배우의 시크한 매력을 담은 단독컷도 눈길을 끈다. 먼저 '귀공자'로 파격 변신에 도전한 김선호는 디테일이 돋보이는 카라리스 슈트 차림으로 영화 속 멀끔한 슈트 차림의 '귀공자'를 떠올리게 만들고, 단단한 눈빛의 강태주에게는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마르코'의 의지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마지막으로 강렬한 눈빛의 '한이사' 그 자체인 김강우와 신비로운 아우라를 내뿜는 고아라의 모습은 캐릭터와의 완벽한 싱크로율을 예고해 궁금증을 자극한다.

강력한 케미스트리가 돋보이는 김선호, 강태주, 김강우, 고아라의 화보와 '귀공자'의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긴 인터뷰는 씨네21 6월 17일(토) 발행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씨네21 커버스토리를 공개하며 기대를 더하는 영화 '귀공자'는 오는 6월 21일 전국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최만식/기자

'이번 생도 잘 부탁해' 신혜선, 안보현 빗장 풀기 노 브레이크... 인생 19회차 로맨스 기대 폭발!

tvN '이번 생도 잘 부탁해' 신혜선이 안보현의 닫힌 빗장을 풀기 위해 노 브레이크 직진한다.

tvN 새 토일드라마 '이번 생도 잘 부탁해'(연출 이나정/극본 최영림, 한아름/기획 스튜디오드래곤/제작 스튜디오 ON, 화인컷) 측은 첫 방송을 하루 앞둔 16일(금) 파워 직진하는 신혜선(반지음 역)과 파워 철벽 치는 안보현(문서하 역)의 투사를 공개해 흥미를 유발한다.

tvN '이번 생도 잘 부탁해'는 전생을 기억하는 인생 19회차 '반지음'이 꼭 만나야만 하는 '문서하'를 찾아가면서 펼쳐지는 저돌적 환생 로맨스. 네이버 웹툰 평점 9.98, 글로벌 누적 조회수 7억 뷰를 기록한 이해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극 중 신혜선은 전생을 기억하는 인생 19회차 여자 '반지음' 역을, 안보현은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재벌 2세 '문서하' 역을 맡았다.

'판타지 로맨스 무패 여신' 신혜선과 '군검사 도베르만'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 안보현이 주인공으로 만나 본격 정주행을 부르는 설렘 충만 환생 로맨스를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개된 스틸 속 반지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19회차 인생에서 '다시' 만난 문서하를 향해 파워 직진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상사 문서하는 신입 직원 반지음의 후진 따위 모르는 직진에 철벽 모드를 가동하고 있다.

반지음의 멈출 줄 모르는 플러팅에 학을 떼듯 눈을 질끈 감고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는 것. 마치 창과 방패 같은 반지음과 문서하의 티키타카가 보는 이의 웃음을 자아내면서 반지음이 문서하를 무장 해제시킬 수 있을지 궁금증을 폭발시킨다.

그런 가운데 '반지음' 역의 신혜선은 앞선 제작발표회에서 "(다시 만난 문서하에게) 저돌적 직진을 해야만 했다. 문

서하가 받아주지 않고 의심부터 하는데 이런 스타일은 재기보다 일단 밀어붙이는 게 낫다"며 "반지음이 이걸 잘 알고 있다. 역시 19번 살았다"며 앞으로 펼쳐질 반지음의 노련하면서 대범하고 솔직 당당한 매력을 예고한 바 있다.

이처럼 반지음은 19회차 인생에서 문서하를 '다시' 만나기 위해 자신의 이번 생을 온전히 그에게 올인했다.

'스타퀸' 만능 소녀로 문서하 다시 만나기 프로젝트의 출발을 한 반지음은 그가 있는 MI호텔 입사를 향해 대학 조기 입학과 졸업, 최연소 선임연구원까지 돌진해 왔던 것.

과연 반지음은 철옹성 같은 문서하의 빗장을 풀 수 있을지 인생 19회차 반지음의 노 브레이크 직진 공격이 벌써 기대감을 높인다.

한편 tvN 새 토일드라마 '이번 생도 잘 부탁해'는 6월 17일(토) 밤 9시 20분에 첫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미스터트롯2' 眞 안성훈, 오늘(16일) 새 싱글 '인생은 알록달록' 발매...남녀노소 취향저격!

'미스터트롯2' 眞 안성훈이 흥겨운 댄스트로트로 여름을 물들인다.

안성훈은 16일 정도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싱글 '인생은 알록달록'을 발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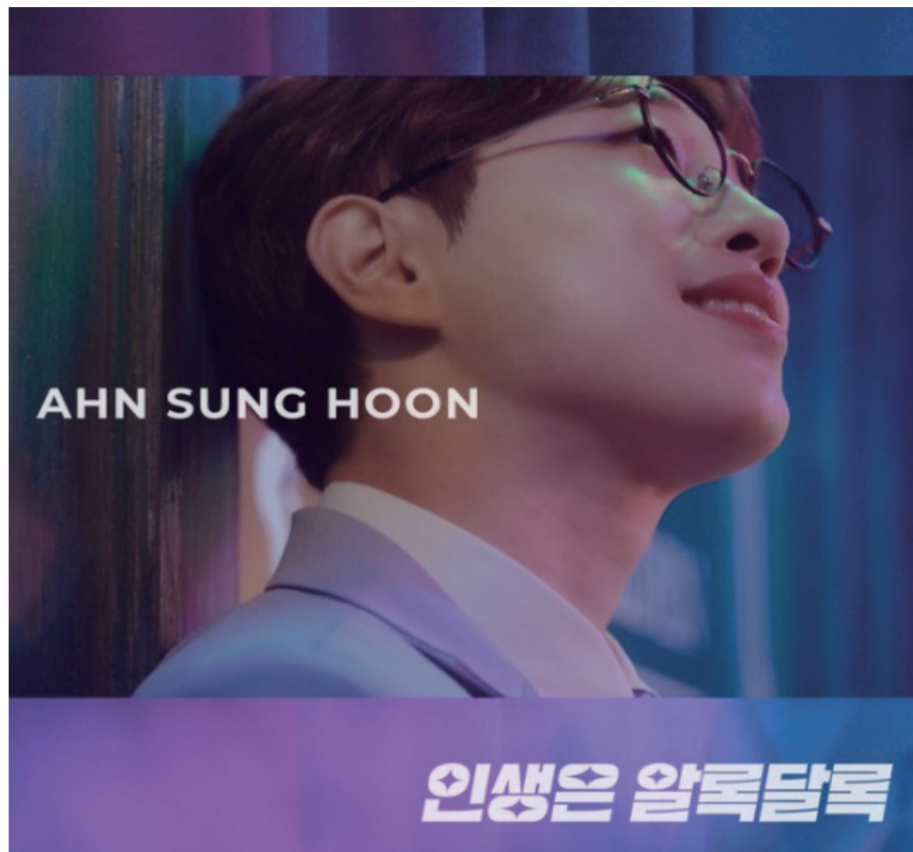
'인생은 알록달록'은 인생의 다채로운 모습을 알록달록한 색깔로 비유한 곡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댄스트로트다.

김나영의 '솔직하게 말해서 나', 먼데이키즈의 '가을 안부' 등을 만든 히트작곡가 이도형(AUG), 트리탑으로 활동하며 '청개구리' 등의 히트곡을 남긴 싱어송라이터 반형문을 비롯해 임영웅, 박현빈, 김희재 등 트로트 톱스타들의 곡을 편곡하고 세션한 최준원의 편곡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여기에 안성훈 특유의 시원시원한 보이스가 만나 그만의 매력이 온전히 드러난 곡으로 탄생했다.

한편 안성훈은 지난 시즌에 이어 '미스터트롯2'에 재도전에 출중한 노래 실력은 물론, 포기를 모르는 성실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현재 '미스터트롯2' 전국투어 콘서트를 진행하며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발매한 TV CHOSUN '미스



터트롯2' 우승자 특전곡 '은인'으로 따듯한 감성을 선사한 안성훈은 흥겨움 가득한 신곡 '인생은 알록달록'을 통해

올여름 남녀노소의 내적댄스를 유발할 전망이다.

최만식/기자

최예나, 신보 'HATE XX' 콘셉트 포토 공개 완료... 핫 아이콘 존재감

가수 최예나(YENA)가 핼색조 매력을 선보였다.

최예나는 지난 14일부터 16일 0시 공식 SNS를 통해 두 번째 싱글 앨범 'HATE XX(헤이트 엑스엑스)'의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다.

앞서 첫 번째 콘셉트 포토를 통해 신비롭고 몽환적인 비주얼을 선보인 최예나는 두 번째 콘셉트 포토에서 한층 도발적인 매력을 발산했다. 조영에 따라 화사하고 다크한 무드를 오가면서도 바비인형 같은 착장을 통해 요정미를 더했다.

세 번째 콘셉트 포토에서는 강렬한 스킨 메이크업으로 걸크러시한 면모를 드러냈다. 레드와 블루의 비비드한 컬러를 찰떡같이 소화할 뿐만 아니라 스타일 리시한 크롭티와 짧은 팬츠로 핫한 매력을 더했다.

마지막 콘셉트 포토 속 최예나는 화사한 핑크색 머리부터 블루 컬러의 두건으로 힙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이로써 모든 콘셉트 포토를 공개한 최예나는 다채로운 마스크로 시선을 장악하며 컴백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HATE XX'는 지난 1월 발매한 첫 번째 싱글 앨범 'Love War(러브 워)' 이후 5개월 만의 신보다. 전작을 통해 짙은 감수성과 깊어진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였던 최예나가 'HATE XX'를 통해 증명할 또 한 번의 성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최예나의 두 번째 싱글 앨범 'HATE XX'는 오는 27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최만식/기자

'K트롯 여신' 김소연, 컴백 확정! 흥겨운 '세미 트로트' 예고!

'K트롯 여신' 김소연이 올여름, 흥겨운 세미 트로트를 들고 돌아온다.

14일 소속사 초이크리에이티브랩(회장 최신규)은 "김소연이 6월 중 밝고 사랑스러운 느낌의 싱글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연이 약 8개월 만에 발매하는 두 번째 싱글 앨범은 세미 트로트 장르로, 신나는 멜로디에 김소연 특유의 밝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소연은 지난 2021년 종영한 MBC '트로트의 민족'에서 17세 고교생 트로트 가수로 활약했고, 준우승을 차지하며 화제를 모았다. 그가 경연 당시 부른 '나이가 가라' 영상은 유튜브 조회 수 1천만 뷰를 돌파하는 등 실력과 스타성을 고루 입증했다.

또한, 김소연은 지난해 2월 MBC '미스터트롯' 음악쇼 복면가왕에 '쌀국수'로 출연해 3라운드까지 진출하며 목소리만으로도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이후 그는 같은 해 10월 데뷔 싱글을 발표하고 활발하게 활동했다.

트로트 신동, K트롯 여신이라는 타이틀을 보유한 김소연이 이번에는 신곡을 통해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소연은 현재 6월 중 컴백을 목표로 새 앨범 발매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만식/기자



부산시, 동물사랑 문화축제 '2023 위드펫스타' 개최

6.17.~6.18. 영화의전당에서 양일간 진행... 부산만의 특화된 다채로운 프로그램 선보여

부산시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영화의전당에서 부산 동물사랑 문화축제 '2023 위드펫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 위드펫스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소규모로 치러진 '2020 부산 동물사랑 온택트 문화축제' 이후로 3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반려동물 축제다.

올해 '2023 위드펫스타'에서는 반려인과 예비반려인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부산만의 특화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전망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펫 플로깅(pet plogging)'(6.17.) ▲ 마이펫 바캉스(6.17.) ▲ 반려동물 힐링음악회(6.17.), ▲ '원조 개통령' 이용훈 헌

소장의 펫티켓 토크쇼(6.17.~18.) ▲ 펫티켓 대회(6.17.~18.) ▲ 경찰견 이야기(6.17.) ▲ 어질리티 존 위드펫파크(6.17.~18.) ▲ 댕댕이 수영장 펫터파크(6.17.~18.) ▲ 반려동물 무료 건강상담 댕댕의료원(6.17.~18.) 등이 있다.

특히, 17일 저녁(7시 30분 예정)에 진행되는 '마이펫 바캉스'는 부산관광공사와 함께하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반려동물과 동반 탑승이 가능한 시티버스를 타고 반려동물과 야경투어를 체험해볼 수 있다.

'펫 플로깅(pet plogging)'과 '마이펫 바캉스'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그 외 다양한 프로그램은 신청 없이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반

려동물복지문화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축제가 일상회복을 맞아 그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반려동물 모두 힐링하며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2023 위드펫스타의 개막식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영화의전당 주무대에서 진행되며,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석해 행사 개최를 축하할 예정이다.

송중진/기자



해남군, 멧과 맛 담아 확 바뀐 전통시장 "사람도 다시 찾았다"

해남읍 매일시장 재개장 인파 북적, 해남군 단단위 시장 현대화도 박차

해남군 전통시장이 맛과 멋을 담은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2월 현대화 사업을 마치고 신속개장한 해남읍 매일시장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건축 심의를 통과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4년 말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장 예정이다.

또한 화원 5일시장도 2023년도 40억원 규모의 시설현대화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건축기획 심의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설계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한 설계 제안 공모 절차를 준비 중이다. 2024년 초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 재건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황산면 남리 5일시장은 2024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남리 5일시장이 선정되어 사업 추진시 해남군 관내에 운영중인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현대화를 모두 완료하게 된다.

군은 시설개선과 함께 시장 발전 프로그램도 현대화 사업 구상에 포함해 추진할 계획으로 단순 시설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만의 특화 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관광형 시장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장 상인회 및 주민들과 협력하여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전통시장을 고장을 대표하는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인터넷 쇼핑 중심으로 소비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경쟁력을 갖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매일시장 재개장 행사를 계기로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관련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로 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해남읍 매일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소외된 해남읍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군과 시장 상인회의 적극적인 협업속에 추진되고 있다.

해남군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소상공인의 소득차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남은 이마지의 전통시장을 깨끗하고 특색있는 시장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매일시장은 해남읍 원도심 전체 상권을 대상으로 하여 2024년 상권활성화 공모 사업을 준비 중이다. 사업을 통해 매일시장과 해남읍 오일시장을 잇는 시장 특성화 거리를 조성하고 해남만의 특색이 담긴 경쟁력 있는 상권을 구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의 기반을 튼튼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단단위 5일시장도 새단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송지연 신장 5일시장과 화원면 화원 5일시장은 각각 2022년, 2023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윤선애/기자



제16회 숲속의 행복나눔축제, 그린(Green)부천, 환영해!

산울림청소년센터, 부천시 환경교육주간 환경축제 성황리 개최

부천시 산울림청소년센터는 지난 10일 토요일, 제16회 숲속의 행복나눔축제 '그린(Green)부천, 환영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 슬로건인 '그린(Green)부천, 환영해'는 '그린(Green)부천, 환경영웅해'의 약자로 시민 모두가 부천의 환경을 지키는 환경영웅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산울림청소년센터 소속 청소년 자치기구인 '청소년환경탐사대'에서 제안했다.

'청소년환경탐사대'는 2007년부터 지역 시민과 청소년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친환경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환경 모니터링, 환경캠페인 등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과 제2회 부천 환경교육주간(6월 3일~10일)을 맞아 ▲그린(Green)부천을 담은, 디카시(詩) 공모전 ▲환경

을 지키는 20여개의 체험과 교육, 먹거리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환경축제로 진행되며, 18개 청소년동아리·생태환경단체·부천시 유관기관이 행사 운영에 함께했다.

환경축제인 만큼 각 체험 부스에서는 친환경 물품 사용,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전기사용 최소화, 리사이클링 등으로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노력했으며, 축제 방문자는 개인 텀블러 지참, 대중교통 이용, 리사이클링 물품 기부로 탄소제로 행사에 동참했다.

청소년환경탐사대 박소담 대장은 "축제에 방문한 청소년과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부천 시민과 청소년이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졌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청년취업사관학교 졸업생·교육생 한자리에...소프트웨어 새싹 개발자 축제 열린다

6월 16일 DDP, 청년취업사관학교 개관 3년차 맞이 교육생-수료생 만남과 축제의 장 마련

하말리아 등산 가이드로 4년간 일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퇴사한 후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해 디지털 직무 전환에 성공한 김민아 졸업생(문과전공), 비전공자임에도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해 운영체제(IOS) 개발자로 취업에 성공한 윤여중 졸업생의 취업 비결은 무엇일까.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미래의 개발자를 비롯해, 디지털 서비스 기획자·디자이너·마케터 등을 아우르는 IT(정보통신기술) 새싹들의 축제가 열린다. 2030 청년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총상금 1,500만원의 개발경진대회의 최종 우승자가 가려지고, 카카오톡, SAP 등 IT(정보통신기술) 기업 현직자가 참여해 업계 동향을 공유한다. 취업 선배들의 현실적인 조언도 취업준비생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서울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개관 3주년을 맞아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수료)생을 비롯한 전국의 청년 개발자들과 IT업계 취업준비생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제1회 새싹(SeSAC) 페스티벌을 6월 16일(금) DDP 아트홀2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 청년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연계까지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려는 오세훈 시장의 대표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2020년 영등포 캠퍼스를 시작으로, 2021년 금천 캠퍼스, 2022년 마포-용산-강서-강동-동작 캠퍼스, 2023년 5월 광진 캠퍼스를 개관하여 8개 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올해 7개 캠퍼스를 추가 개관하고, 2025년까지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전 차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 총 1,93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1,715명(88.7%)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연간 2,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새싹 페스티벌'은 새싹톤(해커톤) 대회,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 중 미취업자를 위한 일자리 매칭데이, 새싹포럼(테크포럼), 홀커밍데이 등 풍성한 본행사외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각종 취업지원 부대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2030 청년 개발자 대표 명의의 상장과 총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과제는 교통안전, 헬스케어, 도시환경/자원순환 총 3개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앱/웹을 개발하는 것으로, 참가팀 대상 온·오프라인 멘토링과 2회에 걸친 평가를 통해 본선진출팀을 결정했다. 청년 개발자들의 신선한 시각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싹포럼에서는 IT기업 현직자인 카카오 공용준 상무, SAP코리아 조용완 전무, 커넥티엄 현경민 대표가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수료)생들과 함께 디지털 분야 신기술 및 업계 동향을 공유하고 통찰을 나눈다.

'개발자로 취업에 성공하는 비결'을 주제로 진행되는 새싹 토크쇼에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 우수 교육파트너,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을 채용한 기업 대표 등이 참여해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어려움과 성공 노하우를 생생하게 공유한다.

오세훈 시장도 참석해 청년취업사관학교를 구상하게 된 계기와 3년간의 성과를 공유한다. 교육 수료생 및 교육 파트너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개발자를 꿈꾸는 청년들과 교육, 취업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교육과 취업 정책에 관한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과 우수한 인재를 원하는 구인기업을 연결하는 새싹 매칭데이도 운영된다. 55개 기업이 참여하며, 현장에서 30개 기업이 1대 1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이번 매칭데이에서는 현장 면접뿐만 아니라, 향후 구직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의면접, 글로벌 취업상담, 커리어 코칭 등이 이루어진다.

모의면접 및 커리어 코칭에는 카카오그룹, 구글코리아, 신한금융, 토스, 당근마켓, 우아한형제들, 네이버 클라우, 티빙 등 유수의 IT기업이 참여하여 구직자들에게 취업 팀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취업준비생을 위한 무료 면접장 대여(취업날개서비스), 면접 메이크업,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등의 취업 지원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디지털 분야 취업에 희망하는 청년들과 우수한 디지털 인재 채용에 고심하는 기업을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가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새싹 페스티벌이 네트워킹부터 취업까지 청년 개발자들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커톤 경진대회, 새싹톤(SeSACTHON)이 열린다. 개발 분야 새싹들에게 팀 구성 → 기획 → 개발 → 발표(피칭)로 이어지는 팀 프로젝트 전 과정에 대한 경험과 또래 개발자들과의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된다.

'서울의 미래를 바꾸는 청년'을 주제로 아이디어 제안서를 공모한 결과 총 210개 팀이 지원했고, 이 중 45개 팀이 본선진출을 결정되었다. 행사 당일 개발 결과물에 관한 시연과 발표를 진행하며, 이 중 8개 팀에는 서울시장-SBA

한 시각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싹포럼에서는 IT기업 현직자인 카카오 공용준 상무, SAP코리아 조용완 전무, 커넥티엄 현경민 대표가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수료)생들과 함께 디지털 분야 신기술 및 업계 동향을 공유하고 통찰을 나눈다.

'개발자로 취업에 성공하는 비결'을 주제로 진행되는 새싹 토크쇼에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 우수 교육파트너,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을 채용한 기업 대표 등이 참여해 취업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BTS 10주년 기념행사' 현장 안전점검

6월 17일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BTS 10주년 FESTA' 대비해 인파 안전관리 지원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1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BTS 10주년 FESTA' 메인 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교통통제 및 인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사 전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BTS 10주년 FESTA(주최: 빅히트 뮤직 등)'는 BTS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서울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외관광객 유치의 하나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경찰 경력배치 및 인파 증가에 따른 단계별 시나리오 등 대응체계, 주최 측-지자체-소방 등 유관기관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후시 모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

현장점검은 6월 16일에 영등포 경찰서에서 교통통제 및 인파관리 등 현장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서울시 주관부서와 함께 무대 설치 현황, 비상로 확보 등 행사장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행사 당일 20:30~21:00 불꽃쇼가 예정되어 있어 행사장 관람객 증가에는 물론, 운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주변도로 정체에 예상되어 교통통제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최광수/기자



영양 들여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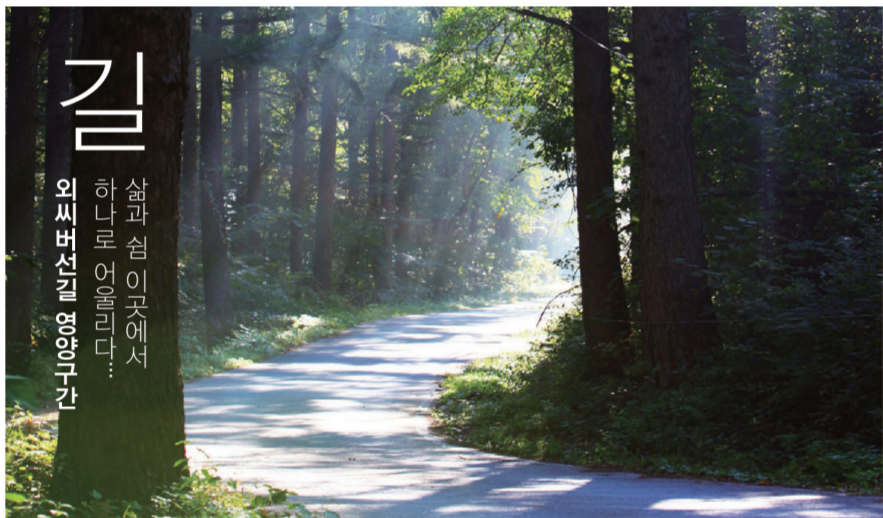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머칠 목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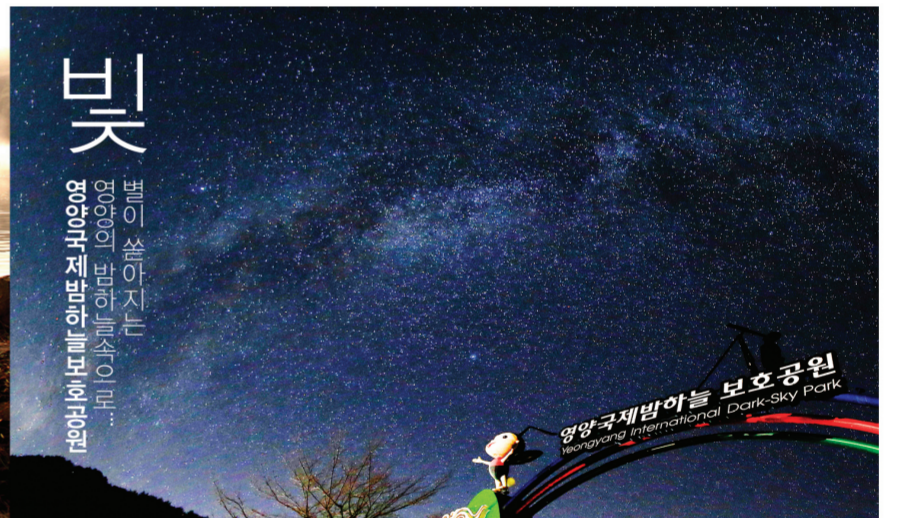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길
삼과섬 이곳에서
하그리 코에리드...
외표자연길 영하거진



물
영양의 푸른하
이엔디에겐 강가...
영양외표자연길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하늘은...
영양외표자연길



일
시문화의 대가
영양외표자연길



맛
사백년들이어린
반가의 레시피
정계향의 영하거진



심
자연과 벗하던 서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외표자연길



숲
한국에서 가장
이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